朝鮮日報 夕刊 二十六日(水) 夕刊十面

宋哲元軍又復 滿國에侵入活動

約五百名이滿國警官隊襲擊 日滿聯合軍出動對應

【電通新京二十五日發至急報】當地着公報에 依하면 二十四日午後一時 滿洲國國境獨石口의 北方滿洲國領土內에 宋哲元軍 約五百名이侵入하야滿洲國國境警察隊에 不法挑戰發砲를 開始하엿스므로 警察隊는 不得己此에 應戰하게되엿스나 少數인關係上 苦戰中이다

宋哲元氏

【電通新京二十五日發至急報】北平交涉이 漸次進捗되여가는 此際에 又復宋軍의 不法越境及 滿洲警察隊射擊의報에 關東軍當局은 極度로 憤慨하고 또 事態를 重大視하야 ○○○에잇는 軍의 救援出動을 命하엿는데 事態如何에 依하야는 斷乎한 處置를할決心이다

【電通新京二十五日發至急報】滿洲國領內의 宋軍不法挑戰에 일즉부터 그動搖를 豫期한 日滿聯合軍은 ○○○으로부터 即時救援할次로 出動하엿다

包圍된警官隊 八十名、全部日本人

關東軍嚴重抗議決定

【電通新京二十五日發】宋軍때문에包圍되엿다는 滿洲國警察隊는 分隊長 井口警佐가 指揮하는三十名의隊員으로 그數日前 새로增派된五十名이 此에加擔하엿다 卽包圍된 約八十名인데 거이全部가日本人이다

【新京二十五日發聯合】獨石口北方에서 宋哲元部下의 再次越境과 不法射擊事件에 關해서는 詳報는 오지아니햇스나 關東軍은 事態를 極히 重大視하고 目下北平에서 察哈爾問題의 善後策交涉中인 土肥原少將에게 不詳事件再發을 報告하야 嚴重抗議키로 決定하엿다

事態는極重大 關東軍當局談

【電通新京二十五日發】그後의情報에依하면 滿洲國領內에 侵入越境한 宋軍은 그主力인 三十七師로 該部隊 約五百外에 그主力部隊의 거의全部가 滿洲領內에 侵入한 形跡이잇서 二十四日午後一時 이것을 探査한 國境警察隊를 包圍發砲한모양으로 事態는자못重大視되는바 右에關하야關東軍當局은如左히말하엿다

此際에 軍으로서는 實落靜觀한 態度로不擴大를願하나右情報가事實이라면斷乎한態度에出할터이다 서서는軍은 斷의 一字가잇슬뿐이다 今後 如何한 事態가惹起하더라도 그責任은 中國側에잇슬뿐이다

挑戰的行爲에 軍部는斷平處置 關東軍某幕僚談

【新京二十五日發聯合】吳根盤事件의 第二不法射擊事件에 關하야 關東軍某幕僚는 如左히말하엿다

關東軍은 東洋平和의 大局에서 忍從에 忍從을 거듭하야 宋哲元軍의 反省을 求해왓는데 如斯히 執拗하게 宋哲元部隊가 大羅會議의誓約과再三警告에도反省의빗치업시 執拗하게挑戰行爲를 反覆하는데잇서 極하

承德○○○部隊 極度로緊張 重要指令을期待

【新京二十五日發聯合】承德來電에依하면 當地駐屯○○○部隊는 二十四日의吳根盤事件以來極度로緊張하야關東軍의 重要指令을기다리고잇다

滿國境部隊 全滅?

【新京二十六日發聯合】吳根盤事件의不法射擊의 詳報에對하야 關東軍에서는 鶴首로 苦待하고잇는데 滿洲國側의 國境守備隊는 極히 少數로 五百名의 武裝中

不法越境部隊 斷乎擊退決定

滿洲國軍에動員令!

【新京二十六日發聯合主急報】第二獨石口事件에對하야 關東軍及滿洲國軍은 極度로緊張하야 二十六日早朝부터 關東軍司令部에서 日滿兩國軍首腦會議를 開催하고 滿洲國軍側으로부터 佐佐木小 川滿兩最高顧問이 出席하야 重要協議를 交한結果 熱河省 ○○地點에駐屯의 滿洲國軍 李守信部隊에 對하야 宋哲元部下의 越境不法射擊部隊를 斷乎擊破하라는 出動命令을 發하엿다

日本軍死傷多數?

【新京二十六日發聯合】關東軍及滿洲國側에서는 第二獨石口事件의 情報를 기다리고잇는데 日本軍에 相當한 死傷者를 出한것이아닌가 憂慮된다

察哈爾事件會議 又復逆轉決裂

會談은無期延期

【電通北平二十六日發至急報】察哈爾事件解決의 最後場面에至하야 南京政府는 다시 國境線非武裝地帶設定에 難色을 致示해왓스므로 二十六日正午에 行할豫定이던 土肥原 秦德純兩氏의會見은 다시 無期延期되엿다

◇土肥原少將談 要求대로解決?

【電通北平二十六日發】雷壽榮氏와 會見後 土肥原少將은말하엿다

中國側은 文書에 依한 全般的回答을 避하려하고잇는데日本側은어데까지 이것을要求하고잇스므로 中國側이 拒絶하면 決裂되다 그러나 結局은 要求대로 될것이다 그리고 問題는 宋哲元軍 撤退가 中心인데 協議는다되엿스나 다만 이것을 完全한 文書로 하는것만이 남은셈이다

文書回答에關한 中國側準備完了

【電通北平二十六日發】二十五日夜 扶桑館에서 行한 土肥原少將과 秦德純氏의使者 雷壽榮氏의會見한結果 中國側은 宋哲元軍의撤退及 眞空地帶의 設定을 回答文書에 明記하는 點에對하야 다시 考慮를 再考하기로되여 雷氏는 扶桑館을 辭去後 軍事分會에 至하야 今晩까지 協議한結果 日本의 意向을 尊重하기로 決定하엿다 이結果를 齎來하야 雷壽榮氏는 二十六日朝 再次 土肥原少將을 訪問하고 回答文書의 最後的 協議를行하야 土肥原少將이 이에同意하면 即時土肥原少將과秦德純氏의 會見

文書作成協議의 國府返電到着

【電通北平二十六日發】南京政府로부터 二十五日夜 秦德純氏에게 察哈爾事件解決條件에 關한 返電이잇서 秦德純氏는 二十五日午後十時부터 居仁堂에서 協議한結果 完全한 解決을 期하기爲하야 回答文書作成에 對하야 一旦 土肥原少將의 意向을 質하기로되어 秦德純氏의 命을바든 雷壽榮氏는 二十五日午後十一時十五分 土肥原少將을訪問하고 察哈爾問題解決의 中國側回答文書中 宋哲元軍撤退地域에 關하야 最後의 協議를 하고 二十六日 午前零時十五分辭去하엿다

商氏保定에赴任

【電通天津二十五日發】商震氏는 國民의 狙擊을맛나 恐怖한事態에陷하여잇는것이아닌가 憂慮되든 河北省主席에任命되엿스나 保定에는 赴하지안코躊躇하야天津에서 省主席의事務를처리하다 그러고 北平政務整理委員會가 撤退될運命에잇스므로 此際에河北省政府가北平에移轉되어 北中四省을統轄하게되리라인데 憶測에依하여서는 天津으로부터도로갈지도모른다

眞空地帶設定

宋軍撤退地域承認

【電通北平二十五日發】二十五日深夜의 土肥原少將、雷壽榮氏會見의 察哈爾事件解決의最後的難點인 宋哲元軍撤退地域問題는 日本側要求대로 承認하고 國境線에 日滿中軍이모다 侵入하지안는眞空地帶를 設定키로 決定하야 技에全혀正式回答文手交手續을 남기게되엿다

話題解說 最惠國約款

[illegible]에서는 加奈陀에對하야 通商擁護法을 發動하기로 決定하엿다는바 그會議에서 加奈陀[illegible] 最惠國約款에 [illegible] [illegible]가업는냐 하는 質問이 잇섯다고한다 그러면 最惠國約款이라는것은무어이냐?

◇

(一)性質 最惠國約款은 最惠國條項 最惠國條款이라고도하는것으로서 任意의 第三國의國民에게 與하는것과 同樣의 權利를 이條項의 當事國國民에게도 與한다는것을 規定한條項이다 一般으로 二國間의 通商航海條約中에 揭하는것이다 이條項이 適用되는 事項은主로 通商、航海、入國、居住、營業等이다 이結果 此等事項에對하야 條項의 當事國國民은 任意의 第三國國民이 가진 權利와同樣의權利를 享有하게되므로 最惠國條項은 外國人의 權利、地位에關하야 [illegible] 重要한것이다 任意의第三國과同樣의 權利를가지게되므로 實際로는 가장만흔權利를가진 國民과 同樣의權利를與하게되므로 그結果는 一方에잇서서 어떤國家內의 外國人相互間의權利、地位가平等하게되고 他方에잇서서 外國人과 國民과의 權利、地位가 顯著히 接近된다 이와가티 外國人相互間과 外國人과 國民과의 法律的地位의 平等과 接近에 最惠國條項은 크게 寄與하는것이다

◇

(二)形式 (가)同一條件을明示하는것、即 最惠國條項의 當事國國民은 第三國國民과 同一條件으로 그와同樣의權利를 享有하는것을 規定한條項이다 (나)無條件을 明示하는것、即 最惠國條項의當事國國民은 無條件으로 第三國國民과同樣의 權利를享有할것을規定한것(다)條件을明示치아니하는것、即單純히 第三國의 國民과 同樣의權利를 享有할것을 規定한 條項이다。

◇

(三)內容(適用事項)最惠國條項이 適用되는事項은 各條項에 따라 相異하야 [illegible]아다。大槪는 通商、航海、入國、居住、營業等의 事項에 適用하는 事項에對하여서는 그事項에關한 一切의權利에適用되다 (가)例外어시適用된다 의二三例外가잇다 (가)國境[illegible]、隣接한二國家의國境[illegible] 一定地域에 잇서서의 [illegible] [illegible] (나)關稅同盟、聯合[illegible] 內의國家間에 適用되는 [illegible]한恩惠的關稅는 最惠國條項의 適用外에屬한다 (다)[illegible] 異한貨物과 疫病의貨物과 [illegible]려한 貨物에는 最惠國條項이 適用되지안코 第三國 國民이享有하는 關稅上特權을 享有치못한다。

森嚴한列國海軍競爭!

英獨協定成立에 强硬한決議採擇

베르사이유條約은破棄된것으로보고 佛下院海軍委員會

【巴里二十五日發聯合】佛國下院海軍委員會는 二十五日正午重要會議를開하고 獨逸海軍의復興에對處할 方策을 審議하야如左한强硬決議案을 採擇하엿다

一、英獨兩國政府間에 今回새로 海軍協定을 締結한結果 베르사이유條約諸條項은 破棄되게되엿다 佛國政府는 베르사이유條約이 維持되리라는 見地에서 華府海軍條約에調印한것이다 이미 베르사이유條約이 破棄된以上 華府海軍條約은벌서佛國政府에對하야 拘束力을가지지아니하엿다

一、따라서佛國政府로서는 海軍制限條約이 새로成立되지안는限 海軍軍備에對하야 完全한自由를回復하게되엿다 이實情에鑑하야 海軍委員會는 政府에對하야 海上의 國防完全을確保하기爲하야 必要한處置를講究하도록 要請한다

委員會席上에서 피에트리 海相은 英獨兩國間에 成立한 海軍協定의 要旨를 說明하야 如左히述하엿다

獨逸政府는 今回의 海軍協定으로 最新式精鋭艦隊를 保有하는 結果가될것이다 佛國海軍은 이미 建造하고잇는 艦艇을 加算하더라도 英國海軍에 對하야 五割四分의 噸數를 가진데不過한다 多幸히 伊太利政府의 友好的態度로 佛國政府로서는 地中海로부터 一定艦艇을 撤去하야 北海와 英佛海峽艦隊를 强化할수가잇슬것이다 당켈크號 스트라스부르號型主力艦이 完成되기까지 브레타뉴號型主力艦을 完全히 改裝하야 그동안에 備할方針이다

佛政府對英回答强硬 一政府招請一蹴

【巴里二十五日發聯合】海軍豫備會談에 關한 英國政府의回答에對하야 佛國政府는 依然强硬態度를 가지고 英國政府의 再次招待를 一蹴할것으로 觀測되며 伊、佛兩國政府도 佛國政府와 共同動作을取하야 적어도近近倫敦에專門委員을 派遣치안을意向이라고 解釋된다

人事集會

▲今井田政務總監 渡滿中의今井田政務總監은田中外事課長、園田秘書官帶同今二十六日午前十時三十五分着列車로歸京

▲今村佐鎭司令長官 二十七日午後九時三十分着列車로入京一泊한後二十八日午後三時五十分發列車로再次元山에

▲金鎔氏(著述家)本社新築落成人事次來社

▲洪性欽氏(殷栗實業家)同上

伊太利는條件附로 英獨協定을容認

【羅馬二十五日發聯合】못솔리니首相은 前後二時間에亘한 이든特使와의 會談에서 終始 强硬態度를 堅持하엿다고 確聞되는데 特히 左의 諸點을 强調하엿다고 傳한다

一、伊太利政府는 陸海空三軍不可分의 主旨에따라 原則으로 海軍問題만을 分離하야 獨逸政府와 協定을 締結하는것에는 反對이다

一、今回의 英獨兩國政府直接海軍協定에 關하야는 伊太利政府는 畢竟 旣定의事實로容認할 用意가잇스나 그러나 英國政府는今回의手續에 關해서는 將來의 發育의權利를留保한다

一、伊太利政府는 다뉴브 로카르노 協定의 締結은 歐洲政局에關한 急務라고 確信하고 羅馬會議를開催하기爲하야 全力을傾注할터이다

一、에디오피아 問題에對해서는 끗까지 外科的手術이 必要하다 伊太利政府는 眞히 最近의 國境紛爭處理에 滿足할수업고 伊에兩國關係全體를 調整하야 東阿平和確立을 圖할方針이다

各國代表巴里에會合

【부카레스트二十五日發聯合】羅馬尼亞外相티투레스쿠氏는 二十五日 부카레스트를出發하야 巴里에 向하엿다 巴里에서 佛國首相 라발氏와 現下 歐洲政局에 對한 對策을 協議할것으로 解釋된다 同時에 蘇聯外務人民委員長 리트비노프氏、체코슬로바키아外相베네슈氏도 巴里에 會合豫定이라고 傳한다

航空十年計畫 幹事會에서決定

一億餘圓尨大事業

【東京二十六日發聯合】遞信省航空局에서는 民間航空을 完全實施하기爲한 內外航空路의 擴張、國際的航空路의 開設、飛行乘員의 養成、其他飛行의 獎勵、飛行助成等 八大項目을 決定하고 去五月廿八日以來海陸軍、外務、大藏、遞信各省으로된 航空幹事會에서 各項目에 亘하야 慎重審議하기 八回에 達하야 廿五日겨우 終了되엿다 그結果는 當初의 計畫과 大差가업다하는데 航空施設事業其他 數項目을 第二次計畫에 돌리기까닭에 第一次十個年一億九千萬圓에서 約八千萬圓을 減少하야 一億一千萬圓으로되엿다 航空局에서는 右幹事會의 承認을 어드면 드듸어 高橋藏相과 正式折衝을 開始하는同時에 床次遞相을會長으로하는航空委員會에諮問하야 七月中旬에決定할 意氣이다

海軍安全保障에 必要한手段講究 佛下院委員會決意

【電通巴里二十五日發】佛國下院海軍委員會는 二十五日의會合에서 如左한決議를 하엿다

英獨海軍協定은 베르사이유條約의條項을 完全히無效에歸케하고 佛國海軍의 華府條約에 依한 拘束에서 解放되엿다고 하고佛國으로하여금 華府條約에서 [illegible] 하고佛國海軍의完全한獨立과不拘束의立場에서 그에代할 新協定이 成立되기까지 政府는 佛國海軍이佛國의 安全을保障함에充分하다고생각하기爲하야 必要하다고생각되는 如何한 手段이라도 取할것이다

張北地方不安增大

【電通北平二十六日發】張家口來電에依하면 張北地方은流言이盛行하고 察哈爾事件解決遷延때문에 軍隊移動에依한人心不安이增大하야 昨朝來 張家口에撤退하는者가 續出하고잇다

米國平時空前의 大海軍豫算案確定

루大統領裁可署名

【電通華盛頓二十五日發】루즈벨트大統領은 議會를 通過하야白堊館에 送付된 一九三五、六年의 海軍支出豫算案에 對하야 二十五日 裁可의 署名을하고 平和時空前의 大海軍豫算은 玆에 確定되엿다 그總額은 四億五千八百六十八萬四千三百七十九弗로最初下院에 提出된 原案四億六千五百二十八萬六千二百六十一弗에 比하야 修正削除로 六百六十萬千八百八十二弗을 減하엿다 右中 主要한項目은如左하다

一、航空母艦一隻、潜水艦六隻의起工開始 驅逐艦十五隻、潜水艦六隻、輕巡洋艦四隻

一、軍用機 五百五十機의 新造(但그中二百八十二機는 代機로됨)

一、海軍將校를 二千六百七十七名增加하야 八千百七十七名으로하고 海軍兵員을 一萬一千名增加하야 九萬三千五百名으로하고 海兵將校를 五十名增加하야千七十四名으로함

(寫眞은 루大統領)

新成한比律賓國 【三】

米化策失敗와解放準備

安在鴻

그러나 타이딩스·마크다피獨立法案이란者가 생기어 比律賓人이 大統領選擧에까지 가기에는 무론相應한 理由와및經緯가 업슬수업다 第一은比律賓領有以來 三十餘年에 極東의政治事情은 巨大한變動이잇서 日本의 三大海軍國의一로서의勢力은 比島의 軍略的地位가 매우危險하게 되엇슴으로 그의極東政策上에 큰意義가업서젓고 第二로는 米國의國情이 移住植民地를 全혀要치안는데 經濟的으로는 砂糖、麻、椰子油 其他生産品이 無關稅로 米本國에 移入되어 그들의産業을 侵蝕하고 比律賓人은 東洋人排斥의障碍를免하야 自由로 入國하야그들의 白人勞働市場을侵害하는 이軍事와經濟上의 兩大條件은 米國의 各層의사람들로 比島解放을 利益으로생각케하는點이다 그런데 米國의 比律賓同化策은 完全히 失敗한것이 또한重要한 一理由이다

×

西班牙는 三百餘年間 比島를 領有하엿섯다 지금比律賓人은 西班牙流의 天主敎를만히믿고 多數가 西班牙語를 日常用語로할만큼 西班牙化한者이다 그러나그들은 西班牙에不服하야 그羈絆을버서나 米國이 이를再次領有하려할때 아기날도等의 抗戰이잇섯고 그後에도 아기날도將軍과 리칼테氏等에依하야 領導되는 카티뿌-난黨은 秘密結社로서 그獨立을運動하엿섯다 지난五月 十日前後 二十四日의投票를 아페노코 即時獨立을主張하야 一大騷亂을일으킨 사크다리스타黨은 目下東京方面에 避身하여잇는 라모스氏 等에依하야 指導되고잇는터이다

×

米國은比島를領有한後 그를米國化시키려는 見地에서 言語 敎育等을 米國流로 하고 大學 專門學校 高等學校 女學校等을세워 主로 英語로써 敎育하고 七十個의中學과 五千個의小學校에서도 英語로가르첫다 官吏와 敎員들에게도 英語를 能通한사람이 아니면아니되엇다 그들은土木 衛生의施設을 善美케 갓갑게하고 一般行政을 勵行하엿스나 그러나比律賓人은 米國의政治를 깃버하지는 아니하엿다 一般人民은 각각그方言과 西班牙的인 言語를써서 그獨自的인 一定한 文化集團으로서의 결어갈 코-쓰를 거옷고잇는것이다 이것만이라면 오히려半部의理由밧게 아니될듯하지만 前述 軍事上 經濟上의理由는 米國自身이 比律賓의 解放을 必要로 하게된것이다 그러하야 一九一六年八月 존스法案이란者에依하야 二十四名의上院과 九十一名의下院을 組織하고 만흔官衙를두어 『內政管理權』을 比律賓人으로 行使하게하야 오늘까지 前後二十年에 미쳣든것이엇섯다

×

케손、오스메니아、로하스等의人物은 이리하야 上下兩院에들어서서 以來항상 太平洋을건너다니며 『獨立運動』에奔走하엿든것이다 그런데 上院議長으로 푸레시덴트로 일커러서 그用語上에는 儼然한 一大統領이엿으로 十五年間 그地位를保全하야 官界游泳에 손속이난 케손氏는 언제부터 푸레시덴트·케손 으로行世하면서政界는무론이요 宴會와 舞踏會에 홍청거리고 쏘단엿다한다 그는一九三一年 當時오스메니아氏와 兼力에依하야 成立되엇든 것핑獨立法案을 破棄하고 自身이米國에 다시건너간 結果 것핑法案의 修正形式에 지나지안는 아이딩쓰案을맨들어내엇다고 有心人에依하야는 批難받는터이다 지금에는 서로妥協한 그의政敵오스메니아氏는 그의譎詐的行動을 猛烈히 攻擊하고 『기집의궁둥이를딸어 米國까지 갓다와다』고辛辣한 暴露戰까지 하엿다고한다 어찌하엿든케손氏는 初有力者의 하나인것이다 타이딩쓰法案은

一、十年以內에 完全히獨立할것

二、獨立하는때는 米國은 直時 比島에서의 陸軍根據地를撤棄할것

三、海軍根據地는 獨立後에도 抛棄치아니함 다만獨立한 二年後에 大統領은 比律賓政府와 이問題로交涉할것

等이오 實은永世中立國을 完成하려함이 그들全體의 希望이다。

八面鋒

◇ [illegible]首相 못솔리니君 이든英國特使와 會見하야 日、英과 獨逸이 저런 協定을 한以上 伊太利는 華府條約을 遵守할수업다고。

◇ 日本의 破棄로서 形骸만 남은 華府條約、 도다시 論議의 材料가 되나?

◇ 高橋藏相 來年度豫算編成方針으로서 經費節約과 公債漸減主義를 提唱。

◇ 돈 節用하고 빗안지는것은 個人經濟에 잇서서도 마찬가지지만、果然 莫大한 軍事費에 節減을 加할 勇氣가 잇는가。

◇ 北中에선 아직도 暴雨、中國은 暴雨不定。

◇六月二十六日부터大公開 米國RKO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大喜劇 女子는고리고리 全八卷 監督…H·홀스하스토氏 主演…잘스、라크스氏 助演…(메요메슷도氏 비리데이스렐嬢)

◇메도로월드윈메이아社超特作映畫 戀愛悲劇 曠野의妻 全七卷 主演(도로시데비오嬢 바-도로런송氏)

新興키네마社超特作映畫 現代劇 草笛을불면서 全七卷 監督……淸凉卓明氏 主演……(森山保氏 花房錦子孃)

次週―六月二十九日부터! 白蓮 十二卷 潛水艦應答업다 六卷 結婚狂 二卷

桃花劇場 電話 一二五七

(二十七日より特選名畫鑑賞デー 二十七日ヨリ二日間) R、K、O社超特作 キングコング (二十九日ヨリ七月一日マデ)取替上映 新興キネマ特作現代劇 鈴木澄子中野英治 滿洲行進曲 二十七日ヨリ五日間公開の豪華篇 エトナ映畫社超特作時代劇 キング連載小說 村上浪六原作 鬼伏セ頭巾 綾小路五郞、五十鈴桂子 主演 大佛映畫社創立記念特作 監督 明光寺陽麿 音樂指揮 佐佐木賓道 主題歌作詞 內山敏子郞 作曲井田一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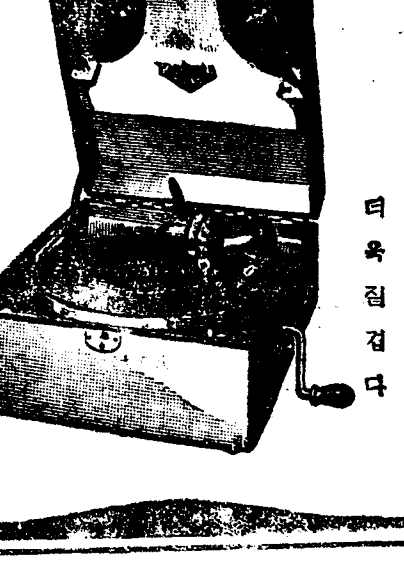
中央館 電話本局二八三八 永樂町 大佛廻國 中島宝三 全八卷

六月二十五日より定期特別公開 御臭色奉仕特別一錢均一 大都映畫超特作時代映畫 原作指導河合德三郞 監督中島宝三 故桂章太郞主演映畫 明暗風流陣 笑らの大王笑は以笑らのバスター・キートンが年に一度の大映畫ビール黨のみなさまへ捧ぐる淸涼萬笑の爆笑大喜劇 メトロ超特作全發聲日本版 エドワード・セヂウイック監督 バスター・キートン主演 キートンの麥酒王 ワユミー・デュラント ロスユー・アチス 共演 コイリス・パリイ 頓馬面のキートンのんき面のキートンさてビール屋を開業して素晴らしい戀と冒險とナンセンスの展開 大都映畫超特作猛闘大活劇 ハヤブサヒデト プロ代表的傑作 監督……大江秀夫 ハヤブサヒデト主演 空飛ぶ癇癪玉 琴路美津子、大山デブ子共演 若月輝夫、高村榮一、宮城浩二

大正館 本局 二三五 櫻井町

六月二十四日부터特別大公開 入場料一割上하 階下十錢均一 RKO會社超特作全發聲映畫 에드와-드그리인氏監督 女護島上陸 나아니-리-氏 助演 大都映畫社時代劇 旅 潛水艦應答업다 日本版 美人B一P… 大都映畫社超特作 河合…

優美館 ... 시몬 ... 릭 ... 삿도그시오 ...



J二의一〇型은 特히갑시싸고 音色도大好評 입니다……

바다와山! 紺碧의바다、 深綠의그늘… 빅타-포-타블이 잇슴으로 더욱질겁다

빅타 포-타블

J二의五(B)、五金 ○圓 J二의一〇一、三金 五圓

京-37

胃腸病藥大王 神效丹 藥價 一〇〇〇 〇.一二五 〇.二五〇 〇.五〇〇 〇.〇〇〇 圓 製造本舖 大邱 慶春堂藥房 振替口座 京城 一手販賣 三中洋行 京城府義州通一丁目 振替京城

流行歌 古賀政男 作曲 凡 吾 作詞 눈물의바다 姜弘植 趙錦子 눈물지마러요

콜럼비아레코-드 株式會社日本蓄音器商會 元賣發賣 京城

江邊의閑日

(오늘한강에서)

運動競技欄

拳鬪發展을위해 國際對抗戰開催

規則改正과任員을改選

아마拳聯代表委員會

全朝鮮아마추어拳鬪聯盟에서는 朝比國際拳鬪戰을契機로하야 第二次代表委員會를 二十五日午後九時부터 百合園에서 開催하엿다 當夜는 멀리 地方으로부터 大邱、平壤、咸興、廣州、水原等地와및 京의 朝拳、東洋、普成、延禧、朝鮮武道館、中央、京城等加盟團體代表二十二名이 參席한가운데 俞(?)鎭博(?)氏 司會로 열리어 常務幹事 尹(?)氏의 報告가잇섯고 (?)니어 聯盟規則一部改正案을 通過시킨다음 任員改選에 드러가 常務理事만을 投票에 依하고 其他는 全部口頭公薦에 依하야 다음과가티 選定하엿스며 今後 拳鬪界의 發展을 위하야 俱樂部리-그戰 또는 地方對抗戰技等을 可及的 開催할것을 決議하엿다

◇新任役員(가나다順)

◇顧問 四新聞社社長또는副社長을推戴함

◇常務理事 李惠澤 成義慶 黃乙秀(理事는加盟十三團體全部)

◇評議員 高鳳梧 金龍九 金東轍 李吉用 李正徹 李水壽 李興在 呂運弘 朴忠根 朴昌薰 朴榮鎭 朴錫胤 吳正煥 尹賢植 張權 崔信東 崔仁浩 崔在煥 崔鎭泰 許爲鎔

◇審査員 金永述 金正學 金冏德 金爾洛 李一 李惠澤 成義慶 鄭惠源 玄正柱 黃乙秀

◇幹事 尹相忠外一人

◇會計 都貢鉉

그리고代議員會가 끗난 다음 緊急理事會를열고 지난朝比國際對抗戰에잇서서 웰터—級의 崔成煥選手의 非運動精神的擧動에 對하야 同聯盟으로서는該選手에게 滿二個年間一切拳鬪競技에出場을 禁止하기로되엿다。

夏休利用하야 普專蹴球滿洲遠征

大連、新京、哈爾賓까지

半島學生蹴球界의王座—普成專門蹴球部에서는 今秋에行할 全朝鮮蹴球大會에 連覇를目標로 夏期休暇를利用하야 滿洲遠征의途에 오를터이바 一行은來七月十四日頃에 仁川出帆의船便으로 大連에를爲始하야 奉天、新京、吉林、哈爾賓等地에 約二週間豫定으로轉戰할터이다

都市對抗野球 朝鮮豫選對陣決定

大每及東日主催의 第五回都市對抗野球戰第二次豫選의 對陣은抽籤結果아래와가치決定되엿다한다

▲七月五日午後四時半平鐵對城津 ▲同六日午後一時 全京城對太星 ▲同日午後四時 釜山對第一日勝者 ▲同七日午後三時 決勝戰 ▲七月五日 午後四時半 平壤實業對城津 ▲同六日午後一時 全京城(殖銀)對大田鐵道 ▲同六日午後四時 釜山對第一日의勝者 ▲同七日午後三時 決勝戰

殖銀庭球平壤에

京城實業庭球리-그의覇者 殖銀庭球部에서는 來七月六日午後三時半 平壤公設運動場코-트에서 全平壤과對戰할터이라한다

全日本軟式庭球 七月廿七日來征

京城運動場庭球코-트竣工落成式을期하야 來征하는 日本軟式庭球聯盟選拔軍은 來七月二十七日과 二十八日의兩日間 同코-트에서 全京城軍과 對戰할터이라한다

會社創立은中止코 東拓、東勸을代行

今年度二千戶는奉天省柳河縣으로

大量移民計畫의그後經過

금정전(今井田)정무총감은 재만조선인문제등에대하야 재만각국관과 직접절충하고저 전중(田中)외사과장을다리고 만주에출장중이든바 이십륙일에 귀임하엿는데 이번에재만조선인취체보호문제등 여러가지대책에대하야협의한외에 명년부터 실시할조선인 대이민계획의실시에대하야는대체다음과가티 결정을지은것으로보인다

이민계획의 내용에 대하야는이미루보한바와갓거니와 이민실시긔관으로는 지금까지 이민회사설립안이 유력 하엿스나 재정상의 문제 기타회사조직에관하야 여러가지 난관이잇슴으로특별히 이민실시긔관으로회사를조직하지는 안코재래와가티동아권업공사(東亞勸業公司)와 동척(東拓)을 역시이민실시의 대행긔관으로하게 대개 내정된모양이다 그리고 금년도의 이천호이민은 긔설각농촌외에 봉천성류하현(奉天省柳河縣)모처에 후보지를 결정하엿다한다

牛車二百餘臺로 塼槨墳을移轉

實物그대로萬人압헤展覽될 高句麗文化最高峯

【平壤】찬연한 고구려문화의최고봉이라고할 평양부외 장신리(將進里)제사십오호 전곽분(塼槨墳)은 모란봉박물관에 이전키로되여 오일이래 소전(小泉)평양박물관장의손으로 해체되여평양에 이전수송중인데 이십일경에는 전부수송될모양으로 고대의련와(煉瓦)가 일만실천장이상에 달하는만큼 수송차는 이백여대에 달할터이다 이전장소는 현박물관아래편목곽분(木槨墳)엽흐로 착착이전신축하가 전개될터이라한다

金池鑛山에서 十餘人重輕傷

【扶餘】부여군임천면(林川面)에잇는 불이금지광산(不二金池鑛山)에서는 지난달에도광부를 ?에서 주상자를내여서 금년십일경에 유공삼(尹公三)이 인부감독이무참히도참사한바 금번십?일에는 광구이림천면만사리(林川面萬社里)에서 동회사에서일을하다가 중지한곳에서 어떤사람이 잠채(潛採)를하다가 노다지를발견하엿다는소식을들은 그부근부락사람으로 인산인해를일우엇는중 돌현히 산상에서목침가튼놀을 집어던지며 벽력가튼소리를치며 나려오는사람이 잇서모혓던사람들은 겁결에뛰여도망을하다가 동리사람유봉식、현기영(俞鳳植、玄基永)외세사람은구렁이에떠러저 중상을입어 생명이위독하다하며 기타십여명은 소경상을 당하얏다한다 독을던진자는 이십이일에야알게되얏는대 동광산인부십장(什長)으로잇는최장홍(崔長洪)이라고한다

清雲洞山路强盜 드듸여指名手配

청운동(清雲洞)산로상 강도사건은 기보와가치소관종로서에서 자못자신잇는단서를 잡어가지고 활동중이라함은 기보와갓거니와 이십오일은 아츰부터심야까지영정(永井)사법주임의 지휘로형사대가 각방면으로 맹렬한활동을하드니 빼앗긴금비녀가 뜻박게도시내모전당포에 전당잡은것이나타나서 형사대는더욱 활기를 어더서 게속하야 활동한결과밤열두시경에 이르러 드듸여각서에향하야 지명수배를 발함에이르럿다

樂壇巨匠桂貞植氏 今番은地方行脚

遠來의伴奏者쿨러孃과함께

本社主催로今月廿七日出發

독일에서 십여년간음악에 정진하야 저짱에서박사학위를 밧고도연주가로서 만흔활동을 하여온우리악단의 보배인『바요리니스트』계정식씨의 귀국은 우리악단은 물론사회적으로도 만흔충동을주엇다 실로 그의연주는 타고난 천재적소질과 풍부한지식에 의하야우리악단으로서 종래상도 못하든 새로운연주의 경지를 개척하게되엿다 그동안 경성、평양、대구의연주회는선풍가튼 절찬의 환호를바든것은 씨의음악에 의하야 고강상태에잇든 우리사회의 음악두회가 일단비약적발전이 잇슬것으로 기대되고잇다

◇

그런데 그동안 씨의연주를듯고저 각지방으로부터 청탁이만헛스나 우선은 반주자가 뜻갓지못하야 주저하고잇든중 이번에 씨의 반주자로 훌륭한 피아니스트『쿨러』양이 멀리 독일로부터와서 쿨러양은 순수한 독일인으로『문헨』국립음악학교 주가로서 그동안 독일서 만히 활동하는중에 약 사년전부터 계정식씨를 알게되여 그의 음악적천재를 심취하야 이래씨의 반주자로 서로도와오는터이다 이번씨가 귀국하여 연주회를개최함에 반주자를엇기에 곤란하다는 소식을듯고 일부러이곳까지와서 약반개년간 예정으로 씨의반주를 하여주고 돌아가게된것이다 이야말로예술의긴흔 리해가아니고서는 도저히 엇기어려운 ?의 경험이다

◇

이에훌륭한반주자를 어든씨는될수잇는대로 널리우리반도 강산을편력하며 음악행각을하야 우리민중에게음악의 전도를할결심을가지게되엿다、날도임이 더워젓스나、다소의불편과 괴로움을 막론하고 이번연주려행을 떠나게되것도、씨가그동안 저짱에서 배워온음악을 조금이라도 좀더 널리 우리민중압헤소개하야 반도음악문화 향상에 진력하겟다는열성의발로이다 이와가튼훌륭한두분을 마지하게되것은지방인사며 지방학교당국으로서도 오히려엇기힘든기회인만큼각방면의환영은 대단하다

◇

출발은경의선(京義線)을위시하야 호남선(湖南線)함경선(咸鏡線)의철도연선주요지를 력방할터인데압으로 구월중동경(東京)의공연때문에 더널리다니지못하는것은유감이다 우선작정된예정은경의선은 ◆이십팔일개성(開城)◆칠월이일진남포(鎭南浦) 그다음이 ◆선천(宣川)◆사리원(沙里院)등지의예정이다

(사진은 계씨와 쿨러양)

艶聞잇는前訓導를 脅迫타가警察에

某未亡人과의關係를들추어

鍾路署에檢擧取調

종로서사법계에서는 이십오일오후에 돈화문내원동(苑洞)사는모홍신소 문회준(文晦俊)=假名=을 류치하고 방금엄중한취조를 진행중인데 사건의 내용을탐문한바에의하면 아래와갓다 그는시내모홍신소사장으로서 시외창신동(昌信洞)모부호의 미망인과 일즉이 시내모보통학교에봉직하다가 지난오월에 그만둔전훈도모와의사이에 관계가 잇다는 소문을 기화로 여기고 전기전훈도를 차저보고 이추문을 드러서 위협하고 처음에는 그가다니는 홍신소의 주식을 사천원을 인수하기를 강요하다가 필경에는 오백원을받고 낙착식힌 사실이 탐문된것이라 한다 또한 이소문관계로 시내 삼판통(三坂通)모목팝프렛트배도 협박한사실이 들추어나서 그서에서는 이기회에 락자를 함께단호히 처치할 의향이라한다

一日十九名患者

危險에瀕한大京城의衛生陣

市內傳染病繼續跋扈

감벼색망은 하눌에찌는드시네리쬐이는불볏아래 경성시내는 미균란비(黴菌亂飛)의 무서운상태에빠저잇다—지난이십일하루에열아홉명이나되는대량전염병환자를내인 시내에서는 이십사일에이르러또다시 열아홉명의환자가발생되、다 그내용별을보면 적리(赤痢)가여덜명、장질부사가일곱명、디부스가한명 성홍열이세명이며 이십일부터이십오일까지닷세동안의 전염병발생상황은 적리가열여덜명、장질부사가삼십명、바라지부스가세명 성홍열이 여섯명이 합계륙십명이나되야 경성부위생과에서는 시내각경찰이필사적으로 방역에주력한하도 그효험이조금도 업시료원의불과가치 만연하야잇는중이다 이에대하야적야(荻野)위생과장은다음과 가티말하얏다

금년에도 세걱정이올시다 넘우만히 발생하니 어느해 처노코전염병이 아조업는바는 아니나이렇래서야진실로걱정입니다 금년에이러 환자가벗적늘엇다는리유야물론여러가지잇지요만은날상관리를말슴한다면 금년은봄이래로 사람을끄으는주최물(主催物)들이만허서 지방사람이만히오기때문에 충분치도못한 경성시내의 위생설비가그나마 파괴되는것이만허서 그리되는것입니다 그리고이맘때면은어린아이들이 만히 먹는소위『아이스케잌』이란것이 비상히위험합니다 가정에서는어린아이들의이것을 주의하얏스면조켓습니다

都市計畫編入에 永登浦反對猛烈

負擔過重을主眼으로

경성부의 도시계획실시에 따른 행정구역확장은 방금 경긔도에서 새로히편입될 긔접된각군면과의사이에 절충을 하는중인데 장래 경성부의공장지대로 예정되야잇고 현금도 공장도시로경성의 위성(衛星)의 역활을 하고 잇는 영등포(永登浦)읍으로본보에서 이미보도한바와 가티관계주민들의 반대운동이 맹렬하야 편입시키기까지에는 상당히 곤난한난관을 지나지아니치 못할모양이다

그들이 반대하는리유인즉 첫재는 경성부로편입이되면 납세부담(納稅負擔)이 현재보다훨씬 늘어나리라는것과 둘재편입후에는 종래의 긔정계획의실현이 곤난하리라는것 즉그동안영등포읍이 자체대로 시설상새로운것이나또는개수하려든것을 마음대로시행시킬수업스리라는것과 셋재는부회의원(府會議員)선출에잇서서장래선거구가 넓어지면 영등포에서과연몃이나나서 영등포구를위하야일하수잇겟는가가의문이라는것인데 이주장되는반대리유이고 종(從)으로는편입하면 그결과로는땅갑의공연한 등귀와 일반물가의앙등이나 이것은 주민의생활비만을 공연히등귀시키여 그결과는 영등포자체의 발전을저해한다는것이다

車馬로家藏窃盜

시내팔판동(八判洞)일백오십오번지 총독부사택용인 우동용길(右同勇吉)은 지난십팔일에 집을비여노코 고향으로갓는데 그동안에 어떤자가 짐수레를가지고달려드러서 가장즙물전체를 실어간것을 이십륙일아츰에야 이웃사람이 발견하고 소관종로서에 보고하야 그서에서는 방금 각방으로 범인을 수사하는중이다

시간문제라고한다

人子謀殺嫌疑로 中年女子被逮

【洪城】지난십삼일 홍성군홍동면문당리(洪東面文堂里)에 거주하는 김팔근(金八根)(三?)의처장성녀(張姓女)(三?)는 살인미수의혐의로 인치취조중 이라는바 사실은 전긔장성녀는 금춘에자긔아들이죽어서 항상남의집아이를 보면자긔아들생각이더욱간절케되여 남의자식을 보면보기실케되자 전긔리범준의처가아이를 혼자뉘여두고 물을길러간사이를 긔회로까쓰를가지고가서금춘생의입에느엇는데 동리범준의처가 물을길어가지고 와서아이가 몹시우는것을 보고자히본즉 토혈을하엿고 설근이상하엿스며 입안이상하엿슴으로 이상하게 생각하고잇든중 전긔장성녀가 二와가튼 행사를하엿나는혐의로 지난십칠일등 홍성경찰서에 유치 취조중이라한다

幽靈新婦로騙財

부끄러워선을안보인다하고

—婚需金만을詐取—

유령신부를가지고 신랑의돈만빼아서먹으는 맹랑한사건이잇섯다 시내서대문정일정목일백십번지정미업리규만(李奎萬)은 평강군목리다태동(平康郡木里多太洞)에잇는 그족하리씨룡(李氏龍)의 장가를드리지못해서 걱정하든차에 얼마전에 그의친지인 주동(周東)구칠번지 공영렬(孔英烈)(?)이 차저와서 내자동(內資洞)이백삼십칠번지 전남포사무원 배문연(裴文淵)(?)의 방연이된딸이 재색이겸비하니 혼망을하면 엇더냐고 권해왓다고한다 리규만은 그러면한번선을보자고 말을내서 공영렬과함께 배문연의집으로갓드니 공영렬과 배문연의말이 처녀가부끄러워서 딴집에피해나갓는데 보지안코를 범연하겟느냐고 하기에 리규만은 그친구의말만밋고 혼수돈의 일부로 위선이십원을 공영렬에게 주엇다고한다

그러고는 불이나케시골잇는그족하를불러올려다가혼인잔채준비를하고는이십륙일아츰에날을바더가지고 배문연을차저갓드니 배문연은말하기를 사실은 자기는 딸이업는데 공영렬이가잠간잇다고 빈말만해달라고구지부탁하므로그러케한일이라고 하면서사정을 햇다고한다 헛돈만권리규만과그족하는매우분개하야 곳소관종로서에 고발하야 그서에서는 방금관계자전부를불러다가취조중이다

소매치기卅名 犯行五百餘回

本町署에檢擧取調

시내본정서(本町署)사법계리(李)형사가 수일전에 시내앵정정(櫻井町)일정목 대정관(大正館)부근에서 전북익산군리리읍(益山郡裡里邑)출생의 박동옥(朴東玉)(?)이라는『스리』를 체포하엿섯는데 이로인하야 의외에 서로서로 련락을취하야 대대적으로 절도를 하고단이던 소년스리 리삼남(李三男)(?)박명선(朴明善)(?)리태국(李泰國)(?) 허국(許國)(?)등 삼십여명을연달어체포하기에 이르럿다 동서사법계에서는 이들스리를 각형사들이분담하야 목하엄중취조중인데 그들의 스리하는방법도 그전에보지못하던 교묘한방법을 사용하여잇스며 그범죄건수도 오백여건이나되며 피해액이 이천여원에달하는바 아직도 체포되지안흔 자가잇서、동서형사대는 게속활동중이다

釜山에兩處火災

【電通釜山電話】이십륙일오전두시 부산부부평정(富平町)일정목 고산제과공장(高山製菓工場)으로부터 출화하야불은맹연히사방으로 퍼저서 이공장의 부근주택세호와창고한채는 전소되고 동세시삼십오분에 진화하엿다 원인은공장부억을 단속치못한까닭으로 손해는 일만오천팔백원이요부근은 인가가조밀한곳임으로 한동안은 대혼잡을이루엇섯다

【電通釜山電話】이십오일오후열시 삼십오분경 부산부좌천정(佐川町)일백륙십팔번지 삼본(森本)제면소공장으로부터 발화하야 큰보통으로 부산소방대로부터달려가서 소화에로력한결과 때마츰서남풍이세게불러 불은맹렬히타올라동공장 오백평을전소하고겨우진화하엿다 원인은『보일러-』가너무뜨거워진것이며 손해는건물만이만삼천원이라한다

天氣豫報

晴後曇

低氣壓은 上海의西部와天津附近과滿洲東部에잇고 高氣壓은本州의東海上에퍼저 그先端은朝鮮의西쪽에突出하여잇다 南朝鮮과東岸은 晴其他는흐리기쉬우며新義州에는小雨가내리다 氣溫은江陵의二三度와雄基의十四度間에잇다 明日은次次로흐리어갈듯하다

最高 二七度二

最低 一六度六

今日正午 二六度一

共有地獨占으로 九十八名이告訴

市外雌馬場里牛馬擊留地를

一個人이登錄햇다고

시내동대문서(東大門署)사법계는 수일전에 구십팔명의명의로공유지(共有地)를독점하엿다는배임명목으로 고소를 제긔한사건이잇서방금 동계한(韓)부장이이를담임코 관계인들을 속속소환취조중인바 이제구내용을 탐문컨대 시외자마장리(雌馬場里)동민의공동사용의 우마게류장(牛馬擊留場)이란약이천여평이잇는데 이공유지를 일한병이호약이십여년전에 동리김성준(金成俊)(?)이란사람이 자긔명의로등록하여두엇든것을그동안동리주민들도별다른관심을가지지안코 내려오던바최근도시계획에반하야 그부근지가가앙등하며폭등함에따라전긔김성준(金成俊)(?)은자긔개인의소유로당연한권리를주장하고동리구장 손경호(孫慶鎬)(?)외 구십칠명의동민들은 공유지임을주장하게 되여드듸여그와가티고소를한것이라한다

間共覆審公判 來秋나開廷

記錄夥多로遲遲未陟

재작년십이월에 경성지방법원에서 사형판결을바든 간도공산당사건의 관계자 박익섭(朴翼燮)등이십이명은 그판결을 불복하고 공소중이든바 금년사、오월경에 복심공판이 잇슬예정이엿섯는데 그동안에 판사의개정관계로 더연기되게되야 방금경성복심법원형사부 적(荻)부장이담당하야 그긔록을열람하고 잇는중인데 하도긔록이 만흔것이므로 하긔휴가전에는공판을 열기어려웟고 아마구월쯤에나 시작하게될것가타다한다

研究社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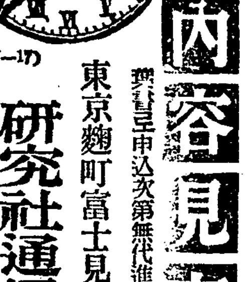
英語通信講座

會費 每月壹圓!

朝凉二時間의活用

獨學者의勝利!

現代萬人의常識은英語! 職業은 勿論映畫스포-츠、아니日常 生活不可缺의第一資本이다 況이후부터의青少年들은英語에 理解力업서가지고光輝잇는前途를못밧는다 此에本講座를읽으라、頭腦가가장明快할朝凉二時間式의活用으로爽快한現代人이되야보이라!!



內容見本 呈進

東京麴町富士見町五

研究社通信學部

(振替東京二〇八五番)

君不見山東胡白菜乎아

誓約! 必植本園種이면菜不可勝食 勿驚…

五大胡白菜種特廉價通信大賣出

胡白菜한포기二十餘斤

1、包頭連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七十錢 五合 三圓三十錢 一升 六圓五十錢

2、芝罘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 二圓八十五錢 一升 五圓五十錢

3、直隸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 二圓八十五錢 一升 五圓五十錢

4、山東白菜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 二圓八十五錢 一升 五圓五十錢

5、中國靑長大根種 一封二十錢 一合六十錢 五合 二圓八十五錢 一升 五圓五十錢

安東縣四番通 山東農園 電話九三一二番 振替京城二二三八二番 (目錄進呈)

好職業

男女遠近不問自宅執務業○動人學生副業最良○收多無休○照會見本進呈

大阪大軌線生駒停留所前 博文社

恩給

民期極低廉立替 他에比較事最有利 信用은弊店의特色 乞照會回答

京城府校洞一六〇 鄭商會

○感 そのまゝ

サック ラッキースキン

現代人の必需品

防毒は産制に

朝鮮劇場 仁寺洞 電光三六二

六月二十六日낫부터特別大興行

每日三回 正午十二時 三時半 八時

階上 大人五十錢 小人三十錢 階下 大人三十錢 小人二十錢

파라마운트社超特作全發聲日本版 미리온케링구監督

룸 바 (RUMBA)

조지라프트主演 캬롤롬바-드主演 마-고助演

南國의港口하바나를背景으로情熱의曲調와 룸바의춤!!!

◉파라마운트特作全發聲日本版 노만도로크監督

超넌센스 사랑과 빵 (一名戀と胃袋)

◉빙그로스비主演 파社作品全發聲 조지마샬監督

空中에서떠러진戀愛

어찌하리까

몸에병이잇스나 부모가몰라주오

문 저는 금년 십칠세된 미혼남자입니다 그리한데 그때 모중학교이학년까지 다니다가 아부님이 돌연히 돌아가신때문과 또 누님이 병에걸리어 중도퇴학을하게 되엿습니다 그리하야 집에들어와 병도 치료하며 가사도돌보고 잇는중、누님병은 완치되엿스나 때가도악하야저서 걱정입니다 저는 독자이니마치 폐병초기의몸이 되다보니 여러가지로 걱정이되여 서울가서 치료해볼가하는생각으로 어머님께 금오백원을 청구하엿습니다 그리 하엿더니 어머님의말슴이 병도업는놈이 난봉이나서 돈쓰려고 한다고 꾸중을 하십니다 저의집은 한사백석추수를 하엿는데 어머니는 폐병이 무엇인지도 몰으시고 돈만쓰려고 한다 하오니 가족도 번열치못한 저는 어되상의할 곳도업서 대단히 난처한 경우에 잇습니다 그래 그만 모-든것을 바리고 야자수 그늘진 남국으로 방랑도하고 십고 죽어버리고 십은마음도 잇습니다 어떠케 처단해야 조켓습니까 (一讀者·金生)

근본을청구해서 의심이나신모양

답 병이낫스면 그것을 치료하는것이 개인의보건으로 보나 민족적보건으로 보나 원측적인 일일것입니다 그러나 현대의의료기관은 돈이잇서야 치료할수잇는 이가치 일반적으로 그혜택을 입지못하고 잇는것이 큰한입니다 그러치만 당신의 경우는 재산이 잇고 또병도 그리중병이 안이니 염려할것이 업슬터인데 그리한 질문을 하시는것을 보면 폐병초기라면 어찌하야 어머님이 그것을 치료할돈을 주지안켓습니까? 그러고 또 오백원이 무슨필요가 잇겟습니까? 그래하오니 당신은 신용잇는 의사의진단을 마러얻어가지고 산이나 바다에가잇슬만한돈을 청구하여 보십시오 그러면 어머님도 곳당신의 의사를 들어주실터입니다 나희도 어린당신이 오백원돈이나 갑작이 청구하니 어머님되시는분도 염려되지 안흘수 업슬터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이상의방법으로 다시 어머님께 말슴을 살후어 보십시오 (一記者)

家庭

남녀간해방은조흐나 필요한것은 성교육

부모에게의론못할그엇던사정 알것을몰나생기는화

남녀가 일곱살이면 한자리에 안지말라는 케케묵은사상이 오래동안 우리네의 도덕적표준이 되어잇고 또한 습관으로 되엿으므로 한번결혼하여 여러해ㅅ동안 기거를 해보지안코는 남자가 녀자란 어떠한것인가를 잘모르고 녀자도 남자를 잘모르게되어잇습니다。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본다면 무슨 신비스러운것이라고 생각을가지는 일입니다。

남녀 [illegible]한

그러다가 금작스러히 세태와 풍속에밧구어지는바람에 남자도 녀자가 피차에 서로 이성으로서의 신비스러운생각이 풀니기도전에 남녀의교제만은 해방되엿습니다 그럼으로 이러한교제와 정속이해방되는데따라 서로 알지못햇든 신비스러운생각、또는 궁금한마음이 여러가지의충동을바더서 깨트려진때는 왕왕 이 조치못한결과를가지오는것입니다 마치 금단의실과가 더먹고십고

화근[illegible]의상

가 더궁금하[듯이] 남의 [문]제 [를] 막는곳에 도리혀 그파게의 충동이 더 강한것만 만큼 이성의사이에 이러한 신비스럽고 궁금한생각이 잇기한나 이성사이의교제가 동성의교제와가티 단순하고 우정인것이될수잇겟지마는 이러케되자면 교육이나 기타 일반적인제도가발달이되지안코는 안되겟습니다。가령 서양과가티 남녀의교제가 그러케빈번하면서도 오히려 명랑하고 불순한데가 적다는것은 그사회의 가정제도나 사회제도가 그만큼완전한까닭이니 첫재 남녀의

교제가명랑하고

순결하게하자면 우에서말한바와가티 남녀의사이에 가로노혀잇는 신비스럽고궁금한생각을업게해야하겟스며 이것을업게하는데에는 또한 성교육(性敎育)의발달이 필요한것입니다。생리적으로 눈뜨는 청춘의매력! 이것을 꿈속과가튼 아름다운환상고기터만 한가지고 냉정한 [illegible]지로서 생리필연성이라는 한개의과학적견지에서생각하면 결코 신비스러운것이 아니고 궁금할것도 안는것입니다。그러나 이러한 성교육은

아직학교에서두

충분이 시행되지안는것가튼것은 매우 유감스러운일이며 더구나 가정의부모되시는분들은 그런한 관심이잇서도 참아 붓그러워서 말 하지못하는것갓습니다。그러나 이것은 부모로서의 가장중요한 책임의하나를이저버린것입니다。그럼으로 자녀가 나히차서 이성에대한눈을뜨게될때는 자긔에게 성에대한 과학적지식이업드래도 자긔의경험을가지고서라도 그때의 생리와 심리의변화가이는게라든지 또한 그변동의 결과는 엇더하다는것을

자서하게가르처

주어서 한개의 냉정한 지식이되도록하고 그다음에는 남녀의교제가 항상 인격을 보전해서 도덕적으로 되어야할것을 훈계하는것이 매우필요합니다。엇더한의미에서든지 부모와 자녀사이에 비밀이잇서서는 안되겟지마는 더구나 이러한일에 서로 붓그럽다고해서 비밀에 부처두면 아무경험도업고 더구나 감수성이빠른 젊은녀자로하여금알지도못하고 타락의구렁으로빠지게하는것입니다。

開된洋裁縫講習會 조양유치원 자모회주최이고 본사학예부후원인 양재봉 강습회는 작이십오일 오후두시부터 조양유치원대강당에서 열녀서 초정원의 성황을 이루엇는데 사진은 방금반실중 끄어내기전 강사 임정혁씨의 주의를 듯는광경

二十六日(水曜)

◇午後六時三〇分 兒童劇 月桂冠(全一幕) 白羊會

◇同六時五五分 라듸오學校 人生과微生物 中央高普 白南雲(?)

◇同八時〇分 講話(一) 李光洙

◇同八時三〇分 伽倻琴倂唱 吳太石 鼓手 池龍九

◇同九時 雜歌 一、春眠曲 二、乾坤歌 金蕉紅 金綠紅 大笒 金永根

◇同九時三〇分 古談 猪頭破承 車青吾

二十七日(木曜)

◇午後〇時五分 管絃樂과첼로獨奏 一、管絃樂 아를르의 게집애組曲中에서…비제作曲 (가) 行進曲 (나) 집시의춤 (倫敦管絃樂團) 管絃團指揮 토-마스비-참 二、첼로獨奏 (가) 西班牙小夜曲…글라주-노프作曲 (나) 론도 복케리니作曲(크라반스키) 三、管絃樂 離別의曲…쇼팡名曲集 前奏曲 C短調 圓舞曲 A短調 마주르카 C長調 圓舞曲 A플랫트長調(離別의曲) 華麗圓舞曲 F플랫트長調 圓舞曲 D플랫트長調(小犬) 圓舞曲 夜曲 圓舞曲 C샤-프短調 前奏曲 F短調 마주르카 B플랫트長調 (伯林管絃樂團 指揮 알로아 스-멜리하르트)

◇同二時 衛生講座 整容手術과畸形矯正의實際(二) 金晟鎭

◇同六時三〇分 橫笛獨奏 一、슬베이그의노래…그리-그作曲 二、他鄕의달…헤이슴作曲 三、旅愁(英國民謠) 四、故鄕의廢家(英國民謠) 五、望月草…草川信作曲 六、夜想曲…구노-作曲 七、아침…弘田龍太郞作曲 鄭德潤 피아노伴奏 金吉洪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延專講師 崔 晃

◇同八時 講話(一) 李光洙

◇同八時 兒童衛生座談會 世富蘭偲慈母會長 金義惠 京城府民病院小兒科長 李先根 梨花保育學校 徐恩淑 世富蘭偲聯合醫院小兒科 趙東秀 外放送部員

◇同八時四五分 時調 一、平時調 二、사설時調 三、지름 高永泰 大笒 朴鍾基

◇同九時 獨唱 一、悲歎…마스네作曲 二、그대꼿과가치…리스트作曲 三、漁夫의노래…탈리아페라이作曲 四、아델라이데…베-벤作曲 安輔承 伴奏·T·B·스투테니-

◇同九時三〇分 歌曲 一、羽調初數大葉 二、羽樂 三、[illegible] 四、界樂 五、[illegible] 金蘭珠 金春姬 洋琴·金相淳 大笒·金永根 杖鼓·金一宇

◇同八時三〇分 빠이올린獨奏 一、소나타G短調…타르티니作曲 第一樂章 아다시지오 第二樂章 프렌스토、돌론포 第三樂章 라르고 第四樂章 알레그로、二、미누엣트…봇케리니作曲 三、人形의춤…포드디니作曲 四、푸시다의女子의노래 후바이作曲 文學準 피아노伴奏

◇同九時 伽倻琴倂唱과民謠 一、倂唱 (가) 名妓名唱 (나) 花草打鈴 二、民謠 (가) 農夫歌 (나) 자진打鈴 (다) 자진打鈴 (라) 물레打鈴 (마) 夢金浦打鈴 金玉眞 細笛 高敦龍 杖鼓 閔完植

◇同九時三〇分 京城坐唱 一、遊山歌 二、船遊歌 三、小春香歌 四、京山打鈴 五、방아타령 張香蘭 孫瓊蘭

二十八日(金曜)

◇午後〇時五分 唱劇調 一、短歌 二、唱劇調 바다령 金玉仙 鼓手 韓成俊

◇同二時 婦人의時間 家庭과料理(二) 成義敬

◇同六時三〇分 童話 가짜將軍 崔仁化

◇同六時五五分 課外講座 延專講師 崔 晃

家庭메모

낫안끌게하는데 외이가예방약

요사이는 밧갓출입을하는이나 해수욕장에가면 낫치 끄을기쉬웁습니다 이것을 예방하는데에 가단한방법을이야기하겟습니다。

오이를껍질을벗겨서 씨를빼지말고 알편하게써러서 그릇에담고 우유를그것이 잠길만치부어가지고 두어시간지난뒤에 헝겁으로짭니다。그래서 그집(汁)으로 매일몇번이든지 나체바르고 더구나 외출하기전후에 그것을바르면 나치 끄을지안흘뿐만아니라 살결이고아집니다。이것은 매우간단하게되는것이니 누구든지해보십시오 이러케매일하면 효과가드러납니다。

그러고 일단 나치끄으러서검게되분은 낫씻을때에 주조(重曹)를손바닥에 노아서 가르비누가티 물에개여가지고씨스면 곳낫습니다

맛잇고 담스런 中國料理 몃가지

炒肝絲

(찬간쓰)도야지간볶금

재료

도야지간 반근을가늘게써러서 물로씻고한삼십분동안 술에 담것다가 또맑은물에씻서서 물기업시해노코

기름。

간장。

설탕

닭국물。한보시기

마늘。한개 채로써러노코

총

갈분가루。물에푸러노코

조리법

남비에기름을펄펄끄리다가 도야지간을넛코 들들볶고 다음에닭국물과 초와 간장을부어 갑을맛치고 갈분가루푼것을부어끄린뒤에 마늘채친것을뿌려서먹습니다。분추가잇슬때면분추를너도조흡니다。

曆 六月廿七日(木) 舊五月廿七日 甲戌·火·角·定 ●結婚·裁縫時刻은 巳時坐向은東 ●嫁娶·裁衣·上樑은巳時 納財에 吉함

◆[illegible] 七日(舊五月初七日) ◆[illegible] 二十二日(舊五月廿二日)

여름어린애기들

너무위해길러도 더위먹는다

치료하는법과예방하는법

더위먹은아이의 증세는 젓먹는 아이와 좀큰아이에따라서 달읍니다。

젓먹는아이는 땀이 만히나고 열도다소잇스면서 잘자지못하고 놀기갑해합니다。그러고 젓도먹으려하지안코 설사를하고 토하기도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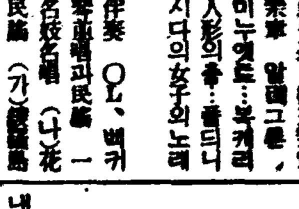
좀큰아이는 열는업스나 전신에 원긔가업시 허황하고 식욕이업서지면서 머리가띵-해서잘 자지못하고 땀을만히흘리면서 가슴이두근거려서괴로워합니다。

이러한증세가보일때에 젓먹는 아이에게는 엷은맥차가루 수분을될수잇는대로 만히빼이고 류통이잘되는 선선한 방에눕히는것이조흡니다 그러나 서늘한바람을 쏘이면 조흘려니하고서 선풍긔를튼때 구비람에쏘이게하는것은 매우위험한것이므로 절대로금하지아니하면 안될것입니다。그리고 땀을쉴새업시 씻처주며 젓은될수잇는대로 먹이지안는것이조흡니다

좀큰아이일때는 고무벼개에어름을너허서눕히든지 누울기경까지는안되엿거든 적은 빙낭(氷囊)을수건에싸서 머리에 대여주는것이조흡니다。역시 설즐은주지말고 될수잇는대로 수분을만히 마시게하며 방은 서늘하게하고 옷도엷게입히는것이조흡니다。

원래에 더위를먹으면 전신이 매우피로해지는것인만큼 그때문에 소화긔의활동이쇠약해지는것이니 무엇보담도 식물에주의를해서 그분량을적게할것은 말할것도업지마는 될수잇는대로 소화잘되는 음식물을 조금식주는것이 조흡니다。

이병의 원인은 몸이더울때에 오래도록햇살에쪼이든지 옷을두껍게입혀서 신체에 열이울적해진것이만큼 그예방으로는 아이들을 너무덥게하지말것입니다。그러나 그럿타고해서 아이들을 일광이쪼이는곳에놀니지말라는것은 아닙니다。그보담도 아이를 넘우소중하게녀여서 감긔가안들게한다고 여름이라도 방속에서 만놀게하고 옷도두껍게입히면 도리혀 더위를먹기가 더쉬운것입니다。일반으로 어린아이는 어른에비하면 여름은더서늘하게해야하며 겨울에는 더덥게해야할것임으로 여름에는 될수잇는대로 배나가리워주고는 발개벗겨두는것이조흐며 몸가운것도 늘 여러두어서 서늘한바람이잘통하도록하는것이조흡니다



유-모어小說 望夫石 (四七)

金熊超 作·畫

復讐 (三)

봉산역을 떠난지 불과삼십분 내외、서울서 업허지면 코다을 데지만 안양은 시골티가 조르르 흐르는곳이엇다。게딱지처럼 납작한 때문은정거장、자갈을깐 신작로가에 조갑지 엎혀노흔듯한집들 그나마도 몃발작국안거려서 뚝 끈허지고 떡편갓흔논들이 열리엇다。

『시가지가 겨우 요뿐인가요?』

유나는 거리에나선 사람들의 눈총이 얄미워서 파라솔을 한편으로 제치고 재호의 겨드로 닥아섯다。

『여기만해도 경기도땅아닙니까?』

『경기도쯤 누가모르나요』

『경기도면 시골이지요』

『서울은 경기도아니고뭐애요』

『경기도야 경기도지만 경기도 경성부라고 누가잘부릅니까? 물론기분제지만 그대로 경성부 하는것이자연스럽습니다。그러니까 경성만빼노코보면 다 시골이지요。우리가 시내에잇슬때는 경기도란 관념이도모지 안생기지만 동소문밧기나 자하문밧만 나서보십시요 벌서 경기도냄새가 코를찌룹니다』

재호의말이 작난갓고 심술굿기는하나 유나는 뭐라고 반박할자료가 업흔나서지안햇다。

두사람은 신작로 길을 떠나 철로둑을 너머서서 삼막사 가는 제길로 드러섯다。

논두렁이나 밧두렁의좁은길에서는 서로압을서거나 뒤를서서것다가도 둔덕지지안흔 폭밧길을 지날때는 억개를비빌듯이나란히 거럿다。그러고유나가 한마디하면 재호는 두마디——우수어서 우슬말도잇섯고 어이업서우슬말도잇섯건만 유나는 찻속에서보다 한결 사분사분하고 야불야불햇다。

『관악산은 저긔애요?』

말끗세도 따라진『…십니까』가주러드러『여요』와『애요』로 통하고 간혹가다 혼자말처럼반말을 불ㅅ숙 내노치만 재호에게는 도리혀정답게들릴뿐이엇다

『관악산은이것도 관악산이지만…』

하고재호는 단장끄트로나지막한주의의산들을 가로첫다『정작 관악의기풍이 드러나는데는 아직도 멀고머러안보입니다。제일 봉연주대를가자면 저-기저높흔 산을넘ㅅ고 또저보다 높흔산을 하나더넘어야 되니까 까마득합니다』

『저를어저나! 우리가는데는 어되애요?』

『삼막사그까지대는 조산너머걸요』

저산을 조산이라하고 아주앗잡아말하나 유나의 눈ㅅ대중에는 삼십리는될것갓다。갈수록첩첩한산、수려하지조코、두귀회가 두하거만 거정이 안보서니 근기의명사도 먹가는소동처럼 살풍경이엇다。

『십리도 못되다구 그러시드니 거짓말이시군……엇저케거려!』

유나는 어이업서가든길을멈첫다

『거러보시면 알지만 사실십리는커녕 오리밧게안됩니다。가시다가 정다리알흐시면 업어드릴테니 염녀마십시요』

『아이 망측해라』

『말도타는데 사람의등에업히는게 뭘명예될꺼야 잇슴니까』

『저러케 말씀하시면 난뭐라구 대답해야조와요』

『제말을 잘구곡해하시고 오해만하시니말슴입니다』

재호는 유나에게설명하다는듯지룰보이라고 가장 정숙한태도를 취햇다。그러나 유나는

『저는 선생님을밋기때문에 그런오해는가저본적이업서요』

한마디로 가볍게 바다넘기고 그의뜰로한표정——방그레—웃는낫을재호에게로돌렷다。——재호는 이웃음한번이면 그만이다。

두사람은옥수가평평흐르는내가에서 물에씻기어하야케되돌을 고 잠시쉬어가기로햇다。재호가 들고온 조히뭉치를 풀어노코 이것저것집어먹으면서 어린애처럼실거워하는 시간이엇다

바람ㅅ가 차차세어지면서 구름이 자조 해를가리기시작한다 갓속이나 의심만흔유나는 하늘만 작구살펏다。

『비는안옵니다』

『날ㅅ가 이상해저요』

『엇더케아세요』

『어제 천기예보를보니까 일시 흐렷다 개인다고햇드군요』

『예보도 어디 잘맛드라구요』

『아닙니다 바람이 이러케불면 비오는일이 업서요』

『그럴까요?』

유나는 일허버린바늘을 찻든시 하늘이구석저구석을 여전히살폇다。재호는

『자-이려서십시다 저-기보이는 저것이 넘물막인데 그엽만 도라서면 바로삼막삽니다』하고 벗엇든 양복저고리를 뀌어입고 넥타이빠진 유나를 압서서 인도햇다。

산을 반쯤올라갓슬때 빗방울이두어번 손등에떨어젓다。그러나 연기처럼 엷게허트러진 구름조각이 지나갈뿐 햇빗은 쨍쨍히 내려쪼엿다。

出産 몬저第一로 ラクトーゲン (라구도겐)

唯一의人工母乳 · 無二의育兒料

新商品 —說明書進呈—

エレドン Eledon

消化[illegible]

藥과榮養을兼한 病兒의哺育料

三重效果 (治療·豫防·榮養)

大阪市東區伏見町二丁目 乾卯食料品株式會社

睡眠不足으로苦痛

爽快하게安眠하는 세가지方法

熟眠하면翌朝는 머리속이 아조明朗

잘 자는애는살진다고한바와如히 어린애라도 식식잘자고난 뒤에는 氣分이조와서病이업고 發育이조타 어룬은 밤에氣分조케 安眠熟睡하야서 一日中의 疲勞를除去하고 새로운元氣를養成하는것이 第一의 强健長壽法으로서

特 히머리를만히쓰는분이 밤에安眠을못하즉 疲勞가남어서 翌朝머리가朦朧하고 眼力도弱해지고 혀는에 白苦가끼어서 食事가맛업고 根氣도薄弱하야서 終日活氣업고 倦怠하기쉽다 하기실흔일은 能率이안올느고 血色은 衰退하야 心身히益益衰弱하여짐으로 睡眠잘할方法이 무엇보다 必要하나 안나明朗하게 安眠하는 方法으로서는

一 電燈을끄고 一切雜音을멀게하야 可及的氣分을鎭定하며 雜念이 이러나지안도록 모든것을 消散케하야 머리속을비게할것

二 就寢前間食을避하고 思慮와感情을 刺戟하는 讀書를하지말고 머리가 욱신욱신하자게될時는 入浴을하야足腰를 따뜻하게하고 血行을조케하야就寢할것

三 以上의方法을實行하야서도 아즉不眠으로困難한분들은 滋養强壯劑의 養命酒를朝夕食前과 就寢前에 一杯式愛飮하즉 血液循環이조코 身體가참으로 속부터 따뜻하고 食事가맛잇서서 머리도써爽快하게되야 밤에는 어느새 氣分조케安眠하게된다고 驗審者는 感心하야이것은 大端조흔것이라고 여러사람들이 評判을함으로 理論은姑捨置하고 한번試用하시면 果然올타고할것이다

자지못하든苦痛에서 잘자게된이기뿜

福岡縣 井上繁三

나는敎員이엿스나、職業上머리를 늘쓰고、더정도普通人以上으로반흔關係인지 漸漸神經過勞를늣기고 最近에는 틀한神經衰弱에걸이고、食慾이減退하며 根氣가薄弱하게되며、繁華한곳과他人面前에나가는 것이甚히괴롭게되야、밤에 못자서、苦惱하엿다、이래서는안되겟다고여러가지榮養劑等을차잣스나 암만해도살낫지안허서悲觀하고잇섯더니、友人에게듯고實驗的으로 飮用하여보앗더니엇젼지氣分이나고、漸漸食事가맛잇게되고、元氣가붓게되며、밤에도爽快하게安眠하게되얏다、이것도오로지鹽澤家의養命酒의恩德이라感激하야每日每日愛飮하고잇다。(十年二月四日受付寫眞은本人、姓名은假名)

小瓶進呈

意外 일만흔好惡을주는深山仙酒로서芳香美味上等의藥物로紹介하기爲하야養命酒試飮用小瓶一本을無料呈上하오니 東京市澁谷區上通四丁目[illegible]番地養命酒本舖出張所로 곳葉書로請求하십시오

滋養强壯劑로

▼强腦强精의目的

▼神經衰弱잇는분

▼不眠숨갓분사람

▼胃腸衰弱한사람

▼呼吸器弱한분

▼疲勞倦怠한분

▼貧血冷病잇는분

▼根氣薄弱한분

▼虛弱體質가진분

▼産前産後의婦人

▼病後恢復期等等

信州伊那の谷名産 製法日米專賣特許

鹽澤家傳 **養命酒** 定價 一圓五十錢 大瓶三圓 德用四圓

◎全國有名藥店、百貨店、食料品店에잇음

品切될때는便宜上東京出張所로注文하시요 送料弊舖負擔代金引換도送料、實費만밧습니다

注意 가짜가잇스니 專賣特許鹽澤家養命酒의文字에特히注目하시고사시시옹

信州上伊那郡中澤村大草 製造發賣元 養命酒本舖 天龍館

東京澁谷區上通四丁目三番地 出張所 養命酒本舖 出張所 振替東京大八八五五番 電話靑山五三八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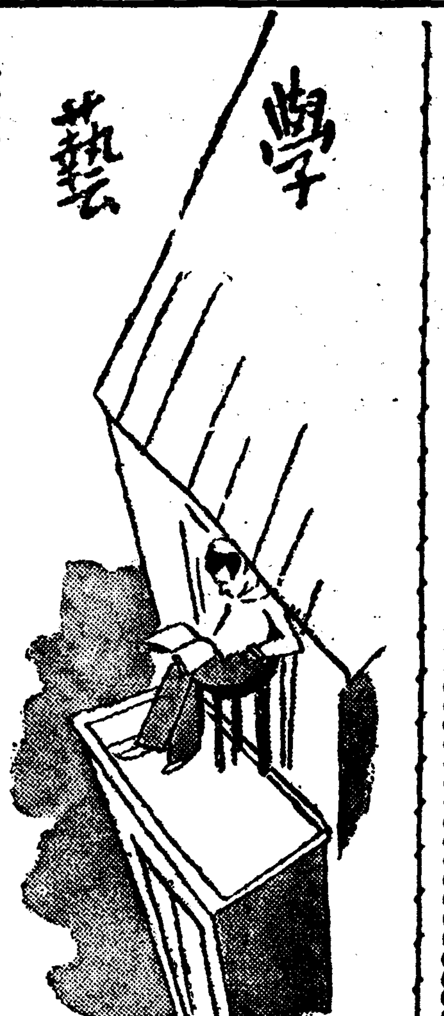
史外異聞 朴燕과砲術

湖岩

朴燕은 和蘭人이니 本名은 『꾼·웰러브레』다 仁祖六年戊辰(一六二八)九月에 그同僚二人과 함께 濟州島에 漂着하매 때는바로 新與和蘭人이 朝鮮에 第一次로 來入한者는 일흔바 丁卯胡亂의 翌年이다 朴燕은 업마아니하야 京城으로 護送되어 訓鍊에 屬하엿다 그後丙子胡亂이 일어낫때 그同僚二人은 滿洲軍과 싸워서죽고 오즉朴燕一人이 남아잇서三十餘年동안 朝廷에서 벼슬하엿는데 朝鮮衣冠을 하고 朝鮮飮食을 먹은것은 勿論이요 朝鮮女子를 娶하야 一男一女까지나햇섯다 이로보면 西洋人으로서 朝鮮에 歸化하야 朝鮮女子와結婚한者ㅣ 朴燕이 嚆矢가 될것이다 朴燕보다압서서 朝鮮에入國한 西洋人으로서 혹은 漂流人과 또혹은 宣敎師가 업슨것이 아니엿스나 朝鮮人이 西洋人과 가장 오래두고 接觸하기는 朴燕이 처음이다 朴燕과接觸하는 그사이에 무슨文化的交涉이나 엇지안햇는가 여기對해서는 두가지 推察이잇스니하나는 그가新敎徒인듯한 事實이요 또하나는 그가火砲匠인듯한 事實이다 朴燕이 매양善惡禍福의 理를 말하며 혹하면 天報를 云云하야 그言이 有道의가갓다고 한것을 보면 當時新敎國인 和蘭人이니마치 그가혹은 新敎徒이엿는지도 모르겟다 다만新敎를 朝鮮人에게 傳道한與否에 이르러는 알수업다 이朴燕은 兵書에通하고 火砲를 製造함이 매우精巧하엿다 하며其他紅夷砲(大砲)의 製法을傳햇다는 記事가 잇는것을 보면 그가 訓局에 屬하야 大砲를 製造하는것도갓다 만일 이것이 事實이라면 西洋文化輸入에 잇서서 重大한意義가 될것이다 正史上에는 仁祖九年辛未(一六三一)에 明으로부터 回國한 使臣鄭斗源이 紅夷砲를 最初輸入한것으로 적혀잇다 그러나 上述한 事實로 볼다면 朴燕의入國이 鄭斗源의 回國보다도 三個年을 압섯스니 따라 朴燕의大砲製造도 鄭斗源의 紅夷砲輸入에 比하야 그마큼 압섯슬지는 모른다 어쨋든지 朴燕의大砲製造는 매우興味잇는 問題이지마는 좀더的確한證據가 發見되면 매우 조켓다 朴燕은 淵, 延으로 쓰기도 하는바 朴燕의入國으로부터 二十五年뒤에 또濟州에 漂到한 和蘭人 하멜等三十六名中에도 火砲를 善解하는 者ㅣ 잇섯다하니 朝鮮에서 그네들을 시켜 大砲를製造햇다면 그야말로 西洋文化輸入에잇서서 또한 크게注目할問題이다 그러나 정작 『하멜의 漂流記』에는 火砲나大砲를 製造하엿다는 事實은 보이지 안는다

★ ★ ☆…… ★ ★

文學 藝



文藝時評 六月創作界一瞥 (1)

李源朝

批評의低調와 混亂이 부르지저진뒤에 果然 우리의 評壇은 秋風의荒原과가치 蕭條索莫한感이업지안타。그래서 우리는 이 評壇의沈滯한 原因을究明하려고도 애를썻고 또한 요시음와서 새로이 權威잇는 批評의出現을 要望하는氣運이 文壇的으로 濃厚해가는것도 事實인것갓다。

그러나 批評이라는槪念을 흔히「헐잡는것」이란말의 代用語로 생각하지기 쉬운만큼 항상 作品을 **讚揚**하고 旣穀하는것보담은 오히려 毁貶하고 暴露하는것으로서 무슨至上의 權威나 잇는듯이 생각하지기도 쉬우나 실상은 어느나라의批評史를보든지 批評이 作品을昂하고 毁謗하는만큼 批評그自身도 항상 作家의 화살을 무릅써온것은 事實이다『부륜틔엘』이 所向無敵의氣槪로서 評筆을휘두를때 얼마나마흔作家의 **反亂**을만낫스며『쌍트·부ー브』인들얼마나 만흔 非難을바덧든가는 새삼스러이 擧論할必要도업는것이다。

그러면 대체로 批評이란 남을毁貶하고 暴露하는것이면서도 오히려 제自身이 또한 그러한 非難과 攻擊을바더온悲劇의 原因은 어듸잇슬까? 이것은 어느때에 말할것이지마는 批評이란 **作品**에對해서 機能的으로는 先行的인것이면서 發生的으로는 後行的인것이라는矛盾속에 숨어잇는 것이다。—라고하는것은 批評이란첫재 作品이업시는 存在할수업는 것이다。그러나 批評이 作品의 뒤에 發生한것이거든 作品을講釋이나하고 記述이나 하엿스면 問題가 업섯슬것인데 後行的인 批評이 항상 作品에對해서 **猥濫**하게도(?)先行的機能을 遂行하려는데에 싯끄러운말성이 생기는것이다。그럼으로 作家와 批評家사이에 이러나는抗爭에는 多分히感情이라는것이作用하는것은 事實이다그러나나는 여긔서 여러人士의 誤解를어지안키위해서『感情의作用』이라는말을 解釋할必要에切迫하엿는데 이『感情作用』이란 決코우리네가 **普通**쓰는말과가티 네가 내作品을 낫부다고햇스니 나는 네批評을信任할수업다든지 네가 내批評을信任하지안흐니 나는 네作品을貶하겟다는 그런 低劣한感情이아니고 좀더『멜리케ー트』한 關係가잇다는것을 말하려하는것이다。

어던사람은 批評家라는 것을 심히斥해말하기를『批評家란 作品을쓰다가못쓰게된 사람이라』고 **極言**하는이도 잇는모양이나 이것은말할것도업시 韓히요사이와서作家批評이라고이르는것을내놋코는 批評과 作品은 그길이다르며 따라서 批評家와 作家의手法도다른것이다。만약 作家가 항상 構成的인努力을하는사람이라면 批評家는 더만히 分析的인努力을하는것은 事實인것으로서作品이 **現實**의한토막을作品으로서 構成하는데는 무엇보담形象的이래야 하는 論

때라는것은 자라리 作品의 背ー로서는 알어보지못하도록하는데 後에 숨어잇서서 普通讀者에 그性格의핵이잇는것이다

黑風 (93)

韓龍雲 作 金熊超 畵

강도 (十九)

어느날밤이엇다 왕한은 약속한 세사람과가티 거리에나서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소옥을 차젓다 그날밤에 소옥은 녀자로 변장하고 순찰을나섯다 소옥은 본래 유명한정탐으로 차차 올너가서 경찰청장이 되엿는대 특별히 변장술이 용하야서 비밀한 일을만히 정탐하얏스므로 그공로로 경찰청장 까지 올너가게 된것인대 경찰청장이 된뒤에도 여전히 여러가지로 변장을하고서 비밀사건을 정탐하기에 힘을 쓰는중이엇다 왕한의 일행은 변장한 소옥이가 멀리오는것을 보앗다

소옥을본 그들은 마치 여러날을 두고 사냥을다니되 룩기한마리도 잡지못하다가 홀연히 호랑이를 맛난것처럼 겁버하면서 한편으로는 무서운생각이나서 주의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얏다

왕한은 전일부터 소옥의얼골을 아라둘 필요가 잇슴으로 기회가 잇는대로 소옥의 얼골을 보아둔일이 잇스나 녀자로 변장한 소옥이를 아라볼만치 익숙하지는 못하얏다 그러나 세사람은 본래부터 소옥이를 익숙하게 알뿐아니라 소옥이가 변장하고 다니는것도 몃번이나보앗스므로 녀자로 변장한 소옥이를 어렵지안케 먼빗즐로 아라볼것이엇다 그리하야 왕한은 세사람의말을 듯고서 소옥인줄을 아랏든것이다 왕한은 소옥의 오는것을 보고는 세사람에게 눈으로 주의를 주고서자기는 먼저 ○○방송로 간다고 그뒤자를 감추엇다

세사람은 한눈으로 소옥을보고 한눈으로 왕한을 보내엇다 그들은 소옥이가 자기네를 주목하지 아니할만한 거리에서뒤에오는 소옥을 번가러 도라보면서 거름가다가 사람의 래왕이 그리 만치아니한 호젓한골목에 이르러서 한편으로 모아섯다가 소옥이가 가까히오는바로그때에다 세사람은 가만히하면서도 소옥에게 들리만하얍소리로

『……어번에는 첫째로 비밀을 직혀야 되겟네』

『그러치…… 아니라○○일이든지 비밀을 직히지○○하면 실패가○○○○』

『요전에도 비·이 탄로되야서 동지들이 붓들리지 아니하얏나 그리하니까 …… 생명으로○ 바꾸지○○○면 아니되네』

『이번에는 꼭 몃놈을 …… 하네』

『동지들이 기다리겟스니 ○○가보세』

이러케 말을하는 세사람은 뒤에오는 소옥을 도려보는듯하더니 홀연히 말을끈치고 무엇인지 소근거리면서 북문박글 향하야 거러간다

소옥은 그들의말이 분명치못하야서 자세히는 듯지못하얏스나 대부분을 아라듯게되얏다

『이것도 큰일낫구나 암살대가 드려온 모양이니 이것을 엇지하나 저사람들이 동지가 기다린다고 가자는것을 보니 아마 암살단의소굴이 잇는모양이다 따라가서보아야겟다』

이러케 생각하는 소옥은 그들의말을 듯고 크게 놀내엿다 그들의말과 행동으로 보아서 『의 암살단이라고 추측하얏다 그들을 발견하게된 소옥은 깃부기도 하얏지마는 무섭기도 하얏다 자기는 그러한것을 정탐하기 위하야 다니는 사람이므로 그러한 대사건을 발견한것이 깃벗고 『『의 암살대라면 무러볼것이 업시 자기가 첫손가락을 꼽을만한 암살대의 목적물이 되엿스므로 무섭지아니할수가 업섯다

소옥은 그들을 당장에 부뜨러볼까 하얏스나 자기 혼자서는 부뜰수가 업고 경찰서이나 부근 파출소에 전화를하야서응원을 어더가지고 잡으라면 그동안에 그들을 노칠까하야서부득이 따라가게 된것이엇다

그들은 따라가는 소옥의눈에는 다른것은 아모것도 보이지안니하얏다 큰길의 양편으로벗나고 잇는 회황한 전등을 복잡하게 오고가는 사람들 각전방에 여러가지로 벌려잇는 물건을 무엇이든지 보이지 아니하얏다 등경은 텅 비엇다 천지간에는 압혀가는 세사람만이 뵈엿다。

少年詩人金君山論 (四)

君山의遁世心境

—山鳥解心의孤獨幽寂한生涯—

李殷相

君山은 (石室書院에서도 여래 讀書하엿스니、) 이石室은 楊州의 一區로서 지금껏 거기 安東金氏系의 位土가잇다。

그가 十四歲時에 이石室書院에서 叔父 三淵先生의 原韻에 次하야 지은노래에『晝宵晴月無窮意、暗溜前江雪裡聲』이라한것을보면 그의 靜思하는 心境이 恒常어떠하엿든것을 알겟다。

그리고 君山의 讀書處로 언제나 그의 그리운곳이 되어던 白雲山에는 白雲寺가 잇섯고 또거기 白蓮이라 부르는 小菴子가 잇섯스니、그가 이곳에서 讀書하기는 아마 十五歲時代인듯하다 그의『遊白雲寺』詩其二에『白蓮小宇、雪裡來讀書、開山實三年閉關故道』란 句節이잇는바이 詩는 己卯年의作이라 그의 **十八歲**時에 該當하니 詩中에『三年만에다시오롯을 말하엿슴으로보아 白蓮菴讀書를十五歲때의일로 推測하는것이다。

그는 實로 이白蓮菴에서 瀟灑한 水雲을 거닐며 홍은微雪의밤에 호올로 孤磬를듯고 혹은 老僧과더불어 蒼檜아래안자 道心에 스스로 잠겻던것이다。

또한 그는 洞陰에 隱居하야 恒常 그곳을사랑하고 또다른곳에 作客하여서도 洞陰의茅廬를 그리던것이니 洞陰은 永平의古號로서 現代로부터 傳하는이룸이다

그가十八歲때의가을에 永平의 어느人家에서 하룻밤을 지나면서도 洞陰故山을 생각하엿스니 그詩에 하엿스되

꽃속에 우는시내
잔잔하고나
내고향 물소리와
그리도갓네
나그내 근심만하
우는이밤을
서리찬 기른뿔에
달이 떠오네

(原詩)

夢隨時睡溪聲裏
溪聲頻如故山同
輾然悄悄那能覓
霜侯三更月出東

그리고 그는 三淵의 고요한 燈火아래서 **北漢**을 지나가는 기러기소리를듯엇고、漢湖의 차고찬 새벽을 旱朝속에돌음어 버거에 하둘지는동안、그感傷的인 少年一生을 마친것이다。

그리하야 그는 恒常 豪快로서 自許하엿던것이니 鳴鴂와 乳燕으로더불어 閑花의 떨기속에 性癖한 一人이되어 스스로 자랑하여 노래하되『豪快聽如吾嚇少、功名早向俗人抛』라하엿다。그리고 또 幽寂한 山房안에서 다만 金書를고와 門을두드리는 隣翁만을 許入하던것은 恭常少年에게서는 想像키도 어려운 거이病的으로 早達한 點이엇다。

뿐만아니라 그의詩에서는 이가른 厭世隱遁의 句節을 너무도 만히 차자볼수 잇는것이니 十五歲때에 漢湖人가의서서 나르는 **白鷗**를 보고 저것은 오히려 고기를엿보다하며 떠가는舟子를보고 저이도 오히려 已利를 取한다 하면서『此物皆有心誰知鷗巾子』나하야 自己의 純粹한隱遁心을 노래하엿고 十六歲때의봄 어느月夜에 謙廳을찻고 竹床에누워『可笑世間名利子誰知春來靜中良』이나하야 羈安속의 安樂을 노래했으며 同年의作으로 故山의溪上에서『從今鎭日三間屋、木食晩婦伴麋麂』라하야 自己의 素懷를 披露하엿고、同年의 마지막 除夜에도『世事茫茫不稱意、會須歸臥白雲層』이라하야 세상을 嗟嘆하엿으며、十七歲의作『輕舟』中에도『或憤鎭磨更深省、浮世經營自漫勞』라하야 모든일의 부질업슴을 道破하엿고、**十八歲**의作『麥谷』中에도『白雲斯在眼、世累攻爲何』나하야 紛紜한 世事世情을 避하야 超然한바 잇음을 말하엿다。

그리하야 일즉 十六歲때에 『感興』이란題로 노래하되

한가한 구름조차
숲속에드니
솔바람 냇물소래
옷깃을씻네
저바깟 뜬세상엔
날일이업고
다만지 山새잇서
내마음아네

(原詩)

步隨閒雲入翠林
松風澗水洗塵襟
悠悠浮世無知已
只有山禽解我心

어라한것을보면 蕭瀟과 體安에서 그를그님을보내던 君山의 마음을 짐작할수잇것다。 (續)

勞賃協定決裂로 二百餘木工盟罷

二十五日同組幹部會서宣言

一般은事態趨移注視

【平壤】평양부내사십일개처목공장(木工場)에서 작업중인 목공조합원 이백오십여명은 이십오일오후두시부터 동맹파업을 선언한후 작업을중지하기때문에사십처공장에서는 할수업시 문을닷게되엇다 목공조합에서는 지금까지에 협정하지안흔 가구(家具)제조에대한 로임(勞賃)의 협정(協定)을 고주측에요구하엿스나 고주측에서 듯지안햇스므로 이십삼、사량일간은 태업상태이든바 종시응락성의가 보히지안허 목공조합측에서는 이십오일오후 박구리(博九里)조합 사무소 에서 긴급간부회의를 소집토의한결과 고주 측에서 요구를 승인할때까지 작업을중지하기로 결정한후 고주측에이뜻을 통지하는동시에 파업에드러갓다 지금까지의 작업중 가구제작에 대해서는 가격협정이 업엇섯스나 최근새로류행하는 각종가구제작에 대해서는 일원오십전내지 이원을 지불하는이、삼개공장이 잇는반면 오십전내지일원정도로 지불하는 공장이만허서 전반공장에대한 통일임금을 협정하자는 요구를 햇다가 파렬된것으로 고임들지불튼이、삼공장에서만 여전히 작업을 계속하고잇는데 일반은사건의추이를주목중이라한다

仁川博文普校 四氏勤續表彰

【仁川】삼십년의 오랜역사를가진 인천박문(博文)보통학교는그간 만흔파란을 겪그면서 수천의남녀졸업생을내이어 교육계에 눈물든 사회적으로 만흔공헌이 잇슴은 세상이공인하는바와가거니와 현재 칠백아동을 수용하고잇서서 제반시설과 성적으로 백중을닷토고 잇는데 면욱이금년에는

男子部=李泰鎬氏

女子部=崔丁善氏 金세시리아氏 洪蔡善氏

의 십년근속을 당하는 동교후원회가사회에서는 전긔사씨의 십년근속표창식을거행키로 결정되엇는데 동교동창회에서도 도한 오는이십륙일 오후팔시부터 동교강당에서 동창회를 개최하고 긔념품진정과 표창식순서 일체를 토의하리라한다

開城木曜會事件 三名滿期出監

【開城】개성부내 남본정(南本町) 한상준(韓相駿)궁정(宮町)조배원(趙培元) 남본정(南本町)김명은(金明殷)등삼명은 저간 목요회사건으로 경성서대문 형무소에서 복역중이던바 만기되어 지난이십사일 오전륙시에 출감하야무사히개성에도라왓다고한다

收用期日在邇나 應買者는極少數

土地七十萬坪家屋九八戶는어데로?

注目되는長津水電用地問題

【咸興】세인의 의목을끄을고잇는 장진강수전회사제언지용지매수문제는 지난오월하순 지주와의최후타협이결렬되고 오월이십구일부로 함남도보로그용지에 토지수용령을적용한다는 공고(公告)까지하엿던바 그간도토목과 긔수소전원(小田原)외수명이 출장하여 회사당국과조종협의하고 실지로지주들과 매수교섭에로력한결과 용지삼십팔필、십오만평의지주 이십명과 가옥(家屋)이 십팔건 소유자십일명만 매수에 응하엿슬뿐 아직도일백륙십이필칠십만여평의지주이십오명과 가옥구십팔건 오십팔명의대다수는 전연강경한태도로 대치하고잇는 형세인데 수용령집행긔일은오는 칠월이십일일임으로 그동안과연 어느만큼 매수에응할가 극히주목되는문제라고한다

匡救事業三個年 窮民은增加할뿐

懸隔한것은直營、請負의勞賃差異

平南救窮工事累計如此

【平壤】피폐한농촌을 구제하라 가련한리재민을 보호하라는소래는 자못놉흔바잇거니와 평남도당국에서는 궁민구제를 위하는 도로(道路)사방(砂防)、하천개수(河川改修)기타의토목공사를일으켜궁민구제사업을하고잇는터인데 소화륙년시월에 이사업이 개시되어래 구년삼월말일까지의 삼개년간에 사역된로동자와 임금 그리고 로임일할(一日一割)저금고를 도사회계에서 조사중이든바 집계가 끗낫다 여기에의하면 지불연인원이백륙십사만팔천삼백구십구인 지불임금 백십삼만이천구백구십륙원일인당평균 로임륙십구전으로 저금한것은 불입인원(拂込人員)륙만구천칠백이십원 일인당 구십팔전의비례인바 공사종목(工事種目)은 도직영공사(道直營工事)와 청부공사(請負工事)의 이종으로 직영공사의 로임은평균칠십오전 청부는십 전이라한나 도당국에서는 광구사업을이상과가튼 모양으로 실시하고잇다하나궁민의 수효는년부년증가하고잇슬뿐이라한다

自殺未遂二題

老人과青年이 모다生命危篤

【平壤】자살을 도모하여 생명이위독한 로인과 청년이잇다 평양부내경제리(鏡齊里)조영식(趙永植)(六九)=假名=은 지금부터 십년전부내신리(新里)신창준(申昌俊)에게백원을빗으로주엇든바지금까지 갑지안는다하여이십삼일오후아홉시 이십분경 빗재촉을갓든바 도로지불치안흐므로 분개한끄테 음독자살을 도모하여 생명이위독하며 평양부내 경창리(景昌里)모은행고원 최일수(崔日壽)(二三)=假名=는 이십삼일 오후십일시사십오분경 솜을마신후 다시음독하여 생명이위독해진것을 도립의원에운반해다가 응급수당중이로 자살하려든 원인은의문이라한다

(谷山面內에) 猩紅熱大猖獗

【谷山】황해도곡산군곡산면내에는 지난오월초순부터 성홍열이 발생하기 시작하야 우금월여를 두고어린 아이들은 한아도빼지 안코낫낫치 헤이는모양인데 현재자리에 누어신음하는 아이들이륙십여명에 달한다고한다

江陵의三樂學院 私校昇格運動

寄附申請코銳意活動

【江陵】강릉에잇서서 과거십여년간 무산아동교육을위하야 막대한 공헌이 잇섯든 강릉삼락학원(三樂學院)은 그간경비의부족으로 폐문의막다른골목에드럿든것을 강릉유지들이 모히어 삼락학원후원회를 조직하여가지고 일층내용의충실을 도모하야 무산아동교육긔관으로서의[손색]이업게 만들기위하야 우선그경비중으로 강릉의부호 최돈중(崔敦重)최준집(崔準集)량씨는각각금천원을 자진의연하야 이사업의 목적달성에 큰힘이되게하얏다함은당시보도한바어니와 그후 도당국에향하야 설비기타에 필요한경비를일반 긔부에의하야 하겟다고긔부허가신청을 학원당국이 제출하얏든바 도당국으로부터 강습소경에 의하야 하는학원에 이런긔부금은 필요치안코차라리 사립학교를세우기위하야한다면 상당히고려하겟다는내시를첨부하야불허가지령을번내리엇슴으로 동학원후원회에서는 지난십칠일위원등이 모히어서 중대사락학원유지후원회는이것을해체하고 즉시사립학교긔성회를조직하야 당초의목적에달성을위하야 맹렬한활동을 하기로하되 금번은 긔부금모집총액을 만원으로하야 그중오천원은건축비기타설비비로 그남어지오천원은긔본금으로하는데 그중오천원은 현재의삼락학원원사급 그 지를방매하야 보충키로하고 오천원만 민간유지에게 긔부를청키로하는데 강릉읍에서 사천원시외에서천원가량을모집할예정임으로일반유지는본사업을위하야전적지지가잇슬것을긔대하고잇다한다

私財千餘圓消費 貧民無料治療

橫城金榮濟氏盛擧

【橫城】산간지대에흉작으로말미아마 식량이업서서초근이나 목피등으로 그날그날을연명하여나아가는화전민이강원도내에서 제일만타고하는 횡성군둔내、정곡、청일、갑천(屯內、井谷、晴日、甲川)사개면에산재한 화전민의수는 실로 삼사천명에달하는바 전긔화전민들은 긔갈을면치못하여서 남부녀대하고 거리로방황하다가 병마에걸리여신음하는자도 적지안호며 화전민의대부분이병에들니며 신음하는중횡성、둔내、공의김영제(金榮濟)씨는빈민들에게 대한동정의눈물을먹금고 무료치료에 착수하야 금년중륙개월동안에천여명의환자를 치료한바소비되야대가 약천여원의 거액에 달하엿다는바 이들들은 일반사회의총송이놉다고한다

五人組强盜團 鑛石包를强奪

【新義州】지난이십일일 오전구시경의주군광구면하광동(義州郡廣郎面下廣洞)이십륙번지에 거주하는 림여화(林汝化)의방에오인조강도가 침입하여 마츰주인이업슴으로 두사람은 문밧게서망을보고 세사람은 림여화의부인에게 위협을하야금광석(金鑛石)이들어잇는 포대일곱개를 강탈도주하엿다는데 금광석은 한포대 시가팔십원가량이라는바 의주서에서는 방금범인을 엄탐중이라한다

平壤

◀日時 六月二十七、八兩日

◀場所 新陽里 崇專大講堂

第二回 田園劇大公演

◇主催 崇專YMCA農村部

◇後援 朝鮮日報社平壤支局

그女子의一生 【142】

春園 作 夕影 畵

어느날 금봉은 우에저나온엄마와 임득희와 서정희를 초대하야 저녁을 대접할때에 올남과그옵바 형식과 또 조명걸과강영자와 심상례와 말하자면 동창적 친구들을 다청하엿다。그들은모도다 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와 잇섯던것이엇다。그날에저녁을먹고나서 남자들은 남자들따로 여자들은 여자들따로 모혀안저서 한담을할때에 금봉이가 양심으로 고민하는 자백을듯고 옥남은 이런말을 하엿다。

「그런 케케묵은 봉건적 인습적도덕관은 다 집어 치어요。첫재 정조라는것이 남자들이경제적 절대권을 가지고 여자를 노예화하라고 만들어노흔 질곡이란말야。남녀간에 서로마음마즈면 가리살고 실혀지면 헤여지고 그러는것이지、정조가 다 무슨 빌어먹다죽을게야。그야우리가 인습에 저젓스니깐 이성간에 서로 만나고 떠날 때에 슬픈수도잇고 괴로운수도 잇지 어듸 시원한 일만이야 잇슬수잇나。그러치마는 그만것은 부스럼이나 생채기와 가타서 세월이 약이어든 얼마 지나면다 이저버린단말야。미처다고 묵은 긔억을 가지고 울고불고 해? 그것은 마치 몸에 때를 내것이라고 애껴서 씻어버리지못하는것과 마찬가지어든。그러니깐 금봉의 마음을 꽉꽉 찌르는가시도 때야 때。묵은 때가 껴서 그런것이니깐 그때를 확확 비누칠을 해서 닥가버려요、시원할테니。메출살지못할 세상에 쾌락이 제일이지 양심의 가책이란 다 무엇이야?」

이런 말을 옥남이가 할 때에 강영자는、

「원 언니두 말두 잘두 허우 어쩌면 그러케 청산류수야」

하고 웃엇거니와 금봉이도 옥남의 이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갈븐하여지는것 가탓다。

「너는 그것두 말이라구 짓거리구 잇니?」

하고 옥남의 옵바 형식이가 겨테서 듯다가 옥남을 노려본다。

「왜요?난 이것두 옵바헌테배운것이라나?」

하고 옥남은 빈정대는드시 고개를 끄덕긴다。

「어떤 미친 옵바가 너헌테그런 소리를 해서?」

하고 형식은 귀막힌 웃음을웃으며、

「내가 연애의 자유를 말하면 너는 연애란 아모런놈하구나막우하는 자유로 알고 내가 인습타파를 말하면 너는 조혼일이구 구른 일이구 엿것이면칭그리 집어치우려 들구! 어째그모양으로 극단으로만 달아나느냐。네 말 가타서야 어듸세상에 법률이니 도덕이니 하나나 남겟니?」

「누가 그까짓의게 남의레? 사내들이 저의게 편하도록만 만들어노흔것을 옵바두 인제는 도루 구식이 다 되어버렷구려?」

「앗어라。그런 생각을 하겟거든 혼자나 하고잇저。남두는데서는 그런 소리 말어? 저러구두 남의 게집애들을 가르키는 선생 노릇을 해?어서 사직해라 큰 일 나겟다。조선 다 망허구말겟다。그래엿자두 옥남이말에 찬성야?」

하고 형식은 강영자를 바라본다。

「우리끼리——여자들끼리 말하는데 옵바는 웨뛰어드시우?」

하고 강영자가 옥남을 두호한다。

「그렁 옥남언니 말이 올치 머」

하고 금봉이도 참견을 하엿다

「크리스찬두 그런 소리를 해?」

하고 형식이가 금봉을 보고 웃는다。

「모두 옵바가 그러케 지도하시구는」

하고 금봉이가 형식에게 눈을 흘긴다。

「옳아。모두 형식이 책임야。정말야?」

하고 상호도 여쪽으로 와 안는다。

「허、이거、내가 자살할 일생겻군」

하고 형식이가 웃는다。

숙희는 벙글만 바라보고 학재는 허공만 바라보고 가만히 안젓다。

마리아라는 서정희는、

「나는 먼저 가요」

하고 일어섯다。

서정희가 중문으로 걸어나가는것을 보고

「정희는 수녀 거래」

하고 옥남이가 한숨을 쉬엇다

化粧下업서되는 스피ー드衿化粧

幸福스런 新夫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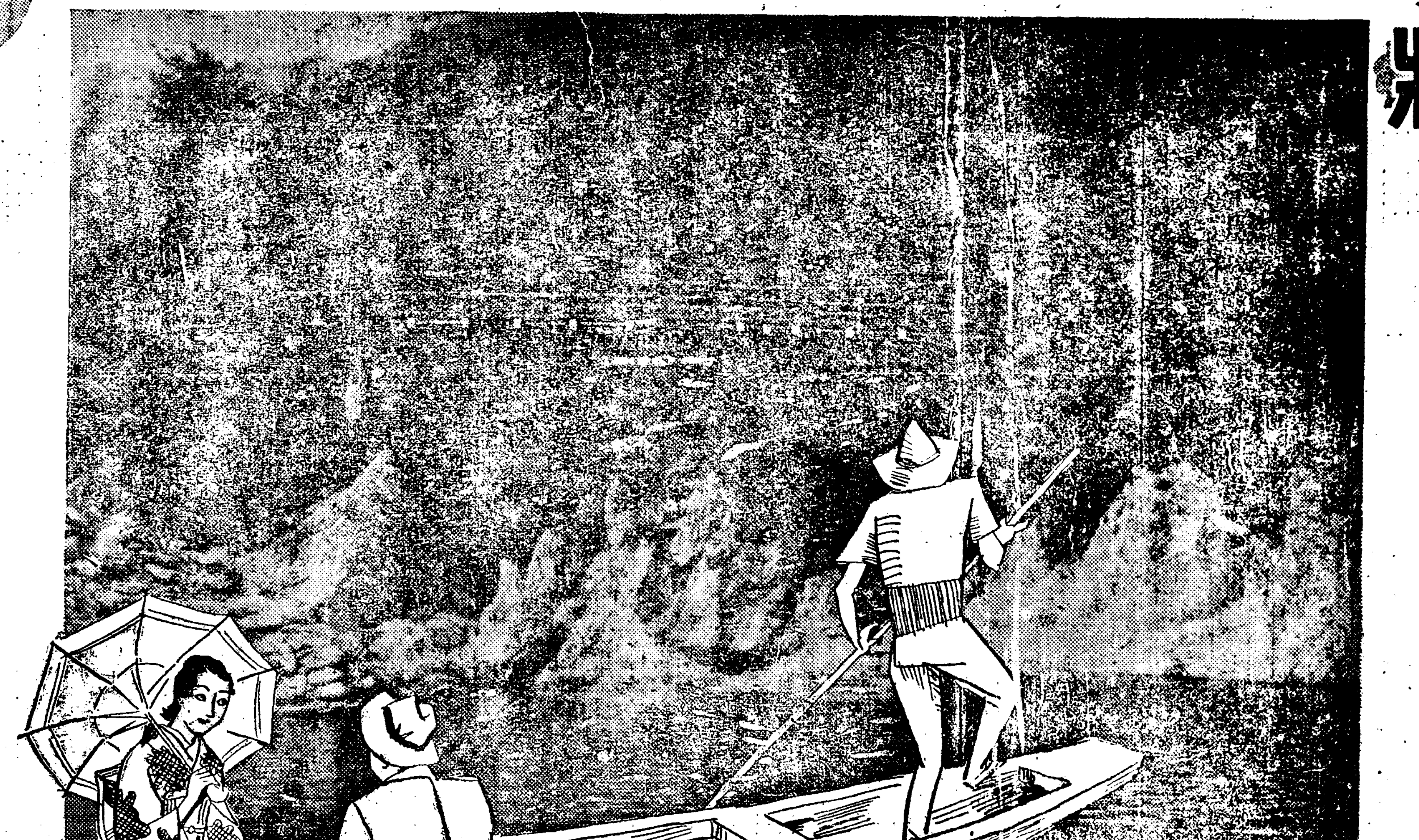
잔잔한水面을떠가는輕舟에新夫婦는幸福스럽게談笑한다/눈압헤山은모다深綠!微風을따러일어나는高雅한쟝미의香氣!

『호호호 어건무슨香내가?』

아ー모다마스타ー香氣지요이건내가化粧下업시쓰는스피ー드化粧의液狀마스타ー粉白粉香내에요』

『응! 내가面刀後발느면至今이氣分그대로爽快하마스타ー바늬싱이구나 도당신만큼愛用하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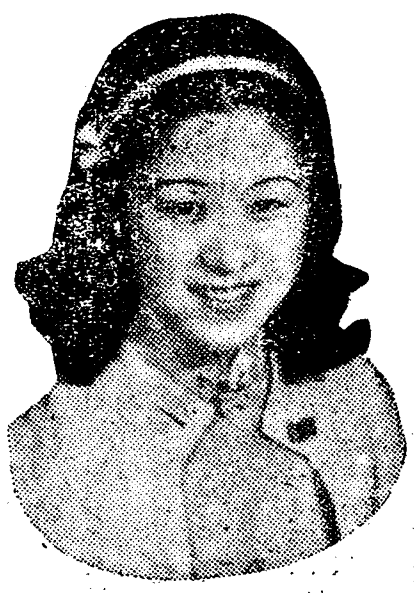
『호호호! 정말그럭킬내이와갓치어엿부고明朗한幸福스런우리지요、네그러치안허요?』



液狀 マスターエリ白粉

(마스타ー衿백분)

시원하고明朗한



벗테살결걱정업다 田中絹代談

나는 요새!異常하게엇전지목덜미가고읍진다고들말하길네西澤博士를차저보왓더니 내가늘家庭에서쓰고잇는 液狀마스타ー衿白粉에比할데업는美肌物質이들어잇다는말슴을하엿습니다! 이衿白粉은일로부터더워지는때간에서나와서 땀이갠뒤에 발너야한답니다 그우에발는 白粉이氣分조케산듯하게발너발림으로、얼웅진것과손자욱은 저진手巾으로살작눌너발으면 그만이니참으로便利하지요 그리고 목덜미와손에 발너두면 볏에걸러정도업습니다……

マスターバニシンクリーム

(마스타ー바늬싱크림)

特許專賣

キカトール

蠅·蚤·蚊·南京虫等害虫의殺虫保証

키가도ー루

家庭用香殺虫液

安住かとり線香本舗

株式會社 安住大藥房

大阪大仁

經濟解說 今後景氣趨向 反動? 尙進行?

(一) 申泰翊

오늘까지 日本經濟의 好景氣는 무엇을 土臺로한것인가하면 財政의膨脹 그中에잇어서도 軍需인플레와 爲替低落을伴하는 輸出增加 卽爲替的인플레의 두가지인것은 누구나 잘알고잇는바이다 그럼으로 景氣의動向을 左右케하는것은 그二大支柱의推移如何에 달려잇는것도 當然한理致이다 昭和七年以來 그景氣의支配條件 卽財政膨脹은 繼續하야 膨脹을보아왓고 또爲替低落을 伴하는輸出增進이 何等의變化가업서 온만큼 日本의景氣는 異常을 보지안코 繼續的發展이 되어온것이다 그러나 財政膨脹을 어느때까지 赤字公債發行만으로써繼續할수업게되어잇다 다시말하면 財政膨脹을 恒久化케하라면 이에對한 恒久的財源을 求치안을수업게되는다 그러나그 財源의길이 아득하다 가령財源을 求한다면 節約과 自然增收에依케될것이지만 오늘에 잇서서 그런程度로만은 財界의膨脹에相應한 財源이 될수업고 唯一한길은增稅로써 그財源을삼을수밧게 업다 그러나增稅란것은 不況의原因이 될뿐이다 이런때문으로 오늘의情勢는增稅必至하면서도 輕輕히增稅에손을 못대이는理由가이곳에 잇다

×

그런데 오늘의日本財政膨脹은아직좀더繼續하야 膨脹하게되지안을수업는것인가 或은輕減케될가 하는點을 먼저 밝히지안을수가업다

◆財政膨脹을 가져오게한 軍需인플레라고 말하는것은 그財政膨脹이 滿洲事變을 發端으로하여가지고 軍事費의激增으로 잇서 財政膨脹이 될가 말가하는것은 곳軍事費의膨脹可能與否를 意味하는것임을 알수가 잇다 卽昭和十年度의歲出合計를 昭和元年度에 比하면三割九分의增加이어 잇는그中 軍事費의增加率은 約廿四割에達하엿다 그러나行政費는 二割二分減이다 그러고 滿洲事變前의昭和六年度를基準으로 計算하면 歲出增加額의 約八割은 軍事費膨脹으로因한 것이다 이와가티 日本의財政膨脹은 거의그全部가 軍事費의激增으로因한것이다

이러한事情가 明年度豫算編成에잇서서 줄게될가 하면 오늘의形勢로는 더늘면 늘어지을可能은 있서보이지 안는다 이것은 웨그러냐고하면 첫재로 海軍費는倫敦條約의決定如何를 不拘하고 各國을通한建艦競爭이激化되는오늘에잇서 到底히 그減額은 거의不可能의일이다 一面으로陸軍費에잇서도 滿洲國을 中心으로한 모든事態는 그減額이 거의絶望狀態에잇는 것이 事實이다 이點에잇서明年度豫算編成은 容易히 財政膨脹을 막지못하게될것으로보하며 떨어서實現景氣는 오히려보다 떠노흔水準으로거의繼續하고 될것이다 그럼으로 軍需인플레에對한 不安은가질必要가업다고 생각할수도잇다

×

그러나 이것은 早晩히 軍事費가 輕減케되지 못할것이라는點만 가지고서 이곳에서 한거름을 나아가서 생각지안을수 업는點이 잇다 卽 오늘에잇서서 財政膨脹이란 것은 赤字公債發行으로써 된 것이며 따라서 이赤字公債를 繼續하야 民間에서 何等支障이 업시 消化케될가 하는點에對하야 생각지안을수업다 이것을 다시말하면政府에서發行하는赤字公債를繼續하야 이에對한民間消化力이 充足케될가 或은 그를 消化할能力이 오늘에 지안케될가 하는點이 오늘에 잇서 不鮮明한터이다 만약에 赤字公債의民間消化力이 果常하고 그公債를 發行함에 그것을보게될境遇에 이것을 不拘하고 그公債를 發行한다면그 것이야말로財界에 重大影響을 招致할 念慮가잇다 그럼으로 오늘에 財政膨脹과 赤字公債의 民間消化力如何는不可離의 큰 關聯性을 띄이고 잇는 點이다 (續)

安取配當復活

【安東電話廿六日】安東取引所에서는 廿五日午後四時부터 同所會議室에서 定時株主總會를開하얏는데 株主要求에 依하야 利益處分案에 無配案을 修正하고 如左히年五分의配當을 可決하얏다 安取로서는 十數年만의 配當復活이라한다

當期利益金	四、四五五、八九圓
◇內譯	
法定積立金	二五〇〇
別途積立金	二五〇〇〇
創立費	二、七八一
株主配當(年五分)	三、二〇〇〇〇
後期繰越金	六、二八〇八

米國經濟 中國視察 今秋九月渡米

【電通上海二十五日發】米國經濟視察團의 渡中에對하야 中國側의中米貿易協會에서는 今秋九月頃 經濟視察團을 組織하고 渡米케하기로 決定하얏다고 發表하얏다 右視察團은 中國銀行界 實業界 農村經濟專門家等 二十餘名으로서 組織할터이라고한다

朝鮮內春繭出廻 全體數量벌서七割

京城以南은거의全部終了 北朝鮮七道尙殘餘

春繭의出廻는 이미全朝鮮을通하야七割에 達하고京城以南은 거의끗나고 咸南、北、江原、平南北、黃海道가 남엇슬뿐인데 京畿는七割以上의 出廻를보고 平南의一部出廻를 빼이고 其他는月末또는 七月上旬으로보터 出廻期에 드러갈터이라한다

高價買入이顯著 京城大邱의兩自由市場에서 目下在品各五萬貫

今年은 蠶繭이 豊作이며그 밧게 大體品質이 優良하고또 原料不足이엇든 關係上 京城大邱의兩自由市場의 問屋側買入이 相當하야 兩自由市場이 各五萬貫가량의 新繭在品을가지고잇는데 모두相當한 高價로산때문에 此等問屋側의買出動이 어느程度까지 일는지 一般의注目을끄을터이라고한다

南朝鮮六道 春繭購入量 旣六割六分完了

南朝鮮六道主要春繭產地 八工場의 六月二十日現在 共販購繭量을 四十二萬四千貫으로豫定購繭量의 六割六分에 達한바 下旬中에는 太半이完了될 모양이다 그리고 西北朝鮮地方은月末頃으로부터 來月까지出廻될터인데 各工場別購繭은 아래와갓다 (以下單位貫)

	購繭豫定	購入量
光州若林	三〇、〇〇〇	三、〇〇〇
京城片倉	六〇、〇〇〇	五〇、〇〇〇
全州同	七二、五〇〇	六〇、〇〇〇
大邱製絲	一四八、〇〇〇	七〇、〇〇〇
大田郡是	一二五、〇〇〇	五〇、〇〇〇
淸州同	一三四、〇〇〇	一〇二、〇〇〇
全南道是	六八、〇〇〇	五〇、〇〇〇
鎭海東洋	五五、〇〇〇	三〇、〇〇〇
計	六三二、五〇〇	四二四、〇〇〇

産業統制法 適用反對 人絹聯合會가

【電通大阪電話】人絹聯合會에서는日本經濟聯合會로부터 重要產業統制法 適用에關한 意見을求하엿슴으로 帝人、東洋紡、東洋레온、日本레온、倉敷、旭벰벨그、日本毛織、錦華의 入社間에協議하엿는데 從來도이에對하야反對의態度를 取하엿슴으로 結局人絹工業은新興產業으로 今後도進展될餘地가 十二分잇고아즉國家의法的힘을 빌기까지아닐호렷다 自治統制力만으로 何等支障이업고 業界를善處할수잇다고함에大體意見이 一致된結果 重要產業統制法의適用에 反對의立場을持續키로되엇다 그리고 今後再協議를한뒤 正式으로 經聯에回答할터이라고한다

米日爲替弱保

【뉴욕廿五日發聯合】廿五日의 米日爲替는 前日에比較하면賣二十九弗十三仙을一仙低 買二十九弗十仙을二仙低

▲東京爲替(二十六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三十二分五

▲大阪爲替(二十六日)

	賣	買
對米	二十九弗	二十九弗八分一
對英	一志二片三十二分三	一志二片八分一

四分利債買入 二千萬圓豫約

【電通東京電話】期米를앞두고二十五日米券의 償還(總額一億四千六百萬圓中借換一億三千七百萬圓)이된바 市中側은 거의期米資金의 償還을바덧스므로 市場資金은 潤澤케 될것이라고 한다 이로因하야 期米金融은 매우平穩히 推移할 것으로 보는데 二十四日에는 右現金 償還을 目標로 一部市中側에서 日銀所持四分利債券(九月物十二月物)米券合하야 約二千萬圓의豫約申請이잇섯다 그리고 日銀當局에서도 借換後行의 米券에對한買氣가 期越後에 本格的으로될것이며 期米는 平穩無事할것이라고樂觀한다

滿洲炭鑛社債

【大阪電話聯合】滿洲國炭鑛株式會社(資本金國幣一千六百萬圓全額拂込)의滿洲國、滿鐵共同出資의第一回社債總額一千萬圓(日本通貨)은 이번에 野村證券一手引受로 압에와가튼 條件으로發行할을 決定한바 本社債는 滿洲國政府가 元利의 支拂保證을하고 이點은 滿洲國法人募債方法으로 注目된다

一、總額=日本通貨一千萬圓
一、利率=年四分五厘
一、發行價格=額面百圓에百圓
一、償還期限=七個年 但三個年据置後四個年間에 毎年五十萬圓以上償還
一、拂込期日=六月十五日

依然統制인플레 ◇……一般經濟界觀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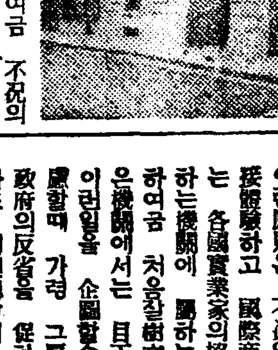
【電通東京電話】明年度豫算編成方針으로 高橋藏相은 國防과 財政의 調和를 圖하고 經濟界의 圓滑한 振興을 圖키爲하야 所謂緊縮財政을 避하는 同時에 財政의 內容을될수잇는대로 化强하려고 意圖하고잇슴으로 一般經濟界에 對하야서는 떼플레金的影響을밋치이업고 依然統制인플레로서 臨하려는것이 明白하게되어 財界는 벌서부터 景氣의招來 公債市價維持等에 對하야 樂觀的態度를 示하고잇다

『國際商議總會』 (一) 目的、組織、重要性

지난廿四日로부터 巴里에서 國際商業會議所의總會가 열리엇다고한다 그런데 이國際商業會議所란것은 大體어떠한內容으로되어잇는지를 보면다음과 갓다

×

巴里 산·드미니街에 二千四百萬法을 드려서 昨年十一月에 新築된것이며 이建物에는 理想的建築物이라고하는 化學館에서 今月廿四日로부터 廿九日까지 國際商業會議所第八回總會가 열린것이다 世界各國有力實業家 約千餘名이 世界不況打開問題를 主要議題로하고 其他各種經濟上의專門的諸問題에對하야 討議키로된바 이것은오늘에서 看過할수업는 重要한國際會議이다 世界不況이 一九二九年秋以來 深刻化하고잇슴은 國際聯盟統計年報에 보힌 世界貿易總額이 一九三〇年度로부터昨年의一九三四年度까지 年年減退함으로 이것이 가장 밝히 證明하고이 不況打開를 目的으로一九三三年倫敦에 열린國際通貨經濟會議의 失敗以來 各國民의經濟協力의精神으로써 不況을打開하라는생각은 적어지고 各國은 主로 獨自의힘으로써自國의經濟的發展을 圖하라는政策을 取케되고 通商障碍의設立을 더욱 頻繁複雜케하야世界貿易의減退를招致하고 딸어서 通商障碍의設立과 世界貿易의 減退는서로 因果關係의事實이다



매저 世界로 하여금 不況의구렁으로 떨어드리는것은 周知의事實이다

이趨勢를 그대로 내버려두면 어떠한事態를 보게될가 그將來를念慮치안흘수업다 이때에잇서 열린 國際商業會議所總會는 그參加者가 各國政府의代表가 아니라 純然한民間實業家임으로 政府를 拘束하는決議를 할수는 업고 다만同會議所會員인 世界實業家의綜合的意思로 世界不況對策의原則을 指示함에 끄칠것이나 이런原則은 不況의若論을 直接解決하고 國際商業會議所라는 各國實業家의協力을 促進하는機關에 屬하는 實業家로하여금 처음實現되는것으로맘은機關에서는 目下에 到底히이런일을 企圖할수업슴을 考慮할때 가령 그原則이 各國政府의反省을 促하는效果만이라도 이번總會의 重要性을 알수가잇다 (續)

▲『金本位復歸』休載 (本欄은總會가열림으로休載)

朝鮮工業界 空前大會議 八十餘名의出席으로 工業大座談會開催

朝鮮商工會議所主催新興重要工業座談會는 二十六日午前十時부터 京城商議第一會議室에서 開催하얏는데 出席者는 穗積殖產、矢島農林、安井專賣各局長、有賀殖銀頭取를비롯하야 全朝鮮各會議所會頭、官民有力者等八十餘名에達하고 研究題目은 電氣、製絲、麥酒、製粉、製鐵、石炭業、石油、『아루미나』『마구네사이트』重晶工業、製鍊、油脂等新興產業의 全般에亘한 廣範圍의것으로 特히 朝鮮의 工業界로서는 空前의 大會議이엇는바 그題目內容은如左하다

一、朝鮮의 電氣統制案의 內容 及 統制具體化實狀
一、同製紙工業
一、同纖維工業
一、同麥酒工業
一、同製粉竝製粉工業
一、同工業用水
一、茂山鐵鑛處理
一、朝鮮의製鐵事業
一、同無煙炭鑛統制
一、石炭需給對策
一、朝鮮의石炭液化工業
一、同窯業及其原料
一、同石油工業
一、同肥料工業
一、同아루미나原鑛
一、同마구네사이트工業
一、同重晶工業
一、同製鍊工業
一、同油脂竝硬化油工業
一、同資源開發竝朝鮮產業調査會設置

漢口錢莊와 破產이續出 商取引을現銀으로

【電通漢口二十六日發】資本金百五十萬元을가진 漢口一流의 錢莊源裕는 二十四日破產을 發表하고 繼續하야 中源外六店의 錢莊도破產하엿슴으로 漢口金融界는 極度의 不安에싸이엇다 源裕의 出資者인 中央通商銀行漢口支店은 이로因하야 二十四日以來推移를觀望하고 同行理事長은 上海로부터 來漢하야 그整理를하고잇는바 一般商取引은 現銀以外行할수업는 不安狀態를 呈하고잇다

日財界 (廿六日)

仁川期米	先限	三七〇
大阪期米	先限	三〇一〇
三等米	一石	[illegible]
正米	一斤	[illegible]
◆市中金融		[illegible]

經濟界消息

○府營殖銀支店은 新築事務所移轉=府營殖銀支店은 大和町通에 經費三萬圓을 들려 支店事務所를 新築中인데 八月中에竣工하고 九月初부터 新支店事務所로移轉할터이라고

○府銀今期業績=府銀今期業績은 大體前期와 大差가업스나 咸興支店마은 開業第一期에 創業費其他의 失費가 만코 赤字가될로되바 來期부터는 黑字가될豫定으로 釜山、仁川、平壤各支店도 黑字를平均하면 와大差가업는業績이라고

○大進製帽所는京城鍾路六丁目에잇는大進製帽所는朝鮮에서 처음으로 中折帽를 製造하는데 外來品보다 優良하다고

商況(廿六日) 一落後에 株式反强

前場低落

東京大阪長期當限納會인데 大阪長期寄付暴落으로短期도不勢이엇슴으로 當地東新日產이모다 結局昨後引에比하야 東新五十錢低인 百三十六圓九十錢 日產一圓三十錢低인 七十七圓三十錢 大新十錢低인八十五圓六十錢에各大引되고 朝新二十五圓十錢 拓新九圓三十錢이엇다

後場反强

後場은大阪長期休會 短期一時間立會로當地도早引되바 反强步調로結局前引에比하야 東新五錢高인百三十七圓四十錢 日產三十錢高인七十七圓六十錢 大新七十錢高인 八十六圓三十錢에各大引 朝新二十五圓丁

豫算戰遂展開 微妙한關係를注視

今前場에納會된 東京大阪의當限은 高價取組임으로受渡悲觀으로 一段不勢이고 이바람에短期에도 一般이잇슨모양인바 例의明年度豫算은 二十五日閣議에서 公債發行을 回避하고旣定經費도節約을爲主로編成方針을 決定하엿는바 藏相의緊縮方針에對하야 各閣僚는 不滿을表示하고 陸海相은 特別取扱을 要求하는等豫算戰이 今後本格的으로 展開될 모양갓다 大藏省은 經費節約公債漸減을原則으로 決定하고 財政强化必要를 力說할터인데 增稅計畫과는別個로 歲入增收를希望하야 各省間에 近日中折衝이잇스리라한다 所謂緊縮財政이란것을避하리라하나 果然國防과財政調和가 어느程度까지 妥協善處될것이며 政治的工作이 어떠케될것인지注目되는터이다

이에對하야 財界는 景氣招來、公債市價維持等에對하야 樂觀的態度를가지고잇는듯도하나 果然어러케單純히보게될이올는지 何如間豫算戰本格化와共히 今後株界는微妙한影響을밧을것이다

晴雨未定市勢 그동안最後整理?

東新百四十五圓中心의 高價取組인當限이 別로큰波瀾업시何如間今前場으로써 納會되엇스며十九日의低價를 底價로보는 觀測이依然不無하고 昨年度豫算編成方針關係決定을樂觀的으로 解釋하는便도잇스나 或은 市勢律로보아 一轉換이 通例的으로잇스리라하야 月末高新甫高를 推測하는傾向이 잇는듯하다 그러나豫算問題를 圍繞한政治關係는本來

大阪短期取組

	賣方	買方	取組高
東新	三四、八	五五、二	五九、三
日產	三九、八	四九、二	七七、〇〇
大新	八一、〇	五四、四	九九、六〇〇

實物前場取引

▲合同油脂 二〇、〇 ▲窒素 [illegible] ▲同新 [illegible] ▲昭和肥料 [illegible] ▲電化新 [illegible] ▲라사工業 [illegible] ▲人造肥料新 [illegible]

東京國債市況

【電通東京電話】月末金融關係로 內國債는 傍觀人氣濃厚하고 閑散이나마 底意는 比較的强固하야 長期現物이 모다 强調이엇다 外債는 佛貨十錢高米貨는 六分半二十五錢高로 買進되엇다

甲 五分利	一〇四、〇五
一回四分利	不申
二回四分利	不申
佛貨四分利	一八六、六〇

紐育株式取引員 資格十萬八千弗

【電通紐育二十四日發】紐育株式取引員의 資格이 二十四日十萬八千弗로 賣買되엇다 前回의取引市勢에比하야 三千弗高이다

日本鋼管取扱變更

淸算市場建株中 日本鋼管株式會社는 昭和十年七月昭和鋼管株式會社를合倂하얏슴으로 資本金이 增加되어 新株式은 二十二萬二千株 日本鋼管株式會社는 資本金을五千五百二十一萬圓으로하고 株式의內容은如左하다

◆舊株五十圓拂込 二十三萬二千株 ◆優先株四十五圓拂込 二十二萬株 ◆新株二十圓拂込 十三萬四千株 ◆第二新株十二圓五十錢拂込 五十二萬株

期米 鈍重이다 頑强

前場小軟

昨後場에 阪地三十圓〇七錢止와共히 二十七圓八十二錢에寄를止한 當市場은今朝에入하야 阪地初付三十圓〇四錢인 三丁低落을 嫌하고 二十七圓八十錢인二丁低로寄를始한後 阪地前場三十圓大蕎低로 五節九十錢의報를入하야 七十四錢까지下押하엿다가 阪場九節三十圓〇七錢으로 〇三錢止揚함을 伴하야 八十錢으로 七十九錢에 頑强히止揚하다

後場頑强

後場은 二十七圓八十二錢에 三丁高로 始場後 八十四錢 三本同價로 五節八十六錢에 頑强이고 別關가리止揚하다

當地仕手一觀 硬派도途轉賣

今月以來의當地市場은 當限〇〇强氣豪除한外에는 大概地場의 買成으로 結局大勢는 上放되고 말엇다 今回政府米의 拂下가거야 우三十五萬石에止함을 動機로하야 有力買方의 猛烈買進으로加一層硬勢를 添하자 群衆買方의 勸退와買方의 利喰으로 市勢는 一段落을 告하엿다 그러나買方主力側인 黛〇兩店은依然態度를 變치안코 持久戰을 繼續하는터이며 硬派의主力者인 金太는利喰을一巡한後 反히途轉賣의 方針을取하는光景이다 實로百餘丁의反動高를示한後인만큼 어느程度까지의反落을告할지 又는此邊에서 保勢를繼續하다가 又復一高를示할지此는 疑問을要치안흘수업스나 그러나 問題의 當限도渡米의調達로 平穩裡에納會를告하게되고 硬派의利喰도一巡한後인 으로 어느程度까지의反落을豫期

滿腹된田中貞 持米와受米로

天下米界의唯一한買方인 田中貞은 民間注目을集中케하는 存在米와 品渡의受渡과 渡米의調達으로 唯一한 强材로하야 買戰을繼續하는한편으로 賣方의渡米防止키爲하야 渡米用에供할期米를 朝鮮正米는 全部買占하엿슴으로 田中貞은持米와 受米로保持해가지고 滿腹中이다 中先으로渡來할 賣方의 中先渡米의買集도 또한困難하지않을바가 아니며 떨어서 마이지는롤이다 今回의受米가 그얼마 되에이잇다 今後의持米處分이 難問이아닐가한다 今年의稻作은 벌서부터 豊作說을傳하고잇다 이로부터 天候가順調되어 稻付를完了하고 靑田時代에入하는때는 豊作의氣分이더욱더욱濃厚할 模樣이오 又는蓬萊米의移入과朝鮮米의移出이 約四百萬石이된것 임으로 滿腹된持米側으로서의狼狽를見하지안흘가한다果如何?

朝取期米取組內容

◆賣方 ◆買方

當	限	[illegible]	[illegible]
中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先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市場六感

株 今前場은 當限受渡悲觀으로一低▲豫算編成에對한 閣議決定을 强氣側은 有利히 解釋하는모양이나▲軍部、藏省間對立을 어떠케 調和식힐지 具體的으로 들어가서는 波瀾雖免이오 一喜一悲的材料로서 株界에微妙한 影響을줄것인즉 미리樂觀은禁物▲下市勢의 中間反발이게 안보는軟派는 설령月末高 新甫高일지라도 有力한 賣場으로보아 突進코저 鬪志滿滿인모양▲紐育株式取引員權利金이十萬하고도 八千弗이라고 朝取取引員權利金은幾何? 好事家는 非算術的으로라도 計算해보시오

米 移狹도 完了하기前에 豊作說이 擡頭 그러나 仁川正米市場에서 約實買하는 新米의價格은 昨年보다 三圓二十錢이나 비싼 것▲昨年은七月二十三日에 友社의 仲介로 豫約實된것이 二十一圓八十錢 今年은 六月二十五日에 豫約實된것이二十五圓▲豊作說이 事實化한다면新米二十五圓은 稍高의嫌이不無▲渡米雖의說이 濃厚하든 地當限은 買方田中貞과 販

山羅과의 一萬二千石의 解合이 成立되고남어지 取組는九萬石▲賣方의渡米가 八萬石이나되즉約萬石쯤은受米하지못할 買方의投退와 相殺될것으로豫定하고納會는意外穩靜할모양▲그런데中限의取組는 十萬石이나되다고 中限戰이또壯觀을일울모양이지그러나賣方의 渡米調達이 또問題로군▲三十五萬石용의拂下로는 民間在米의品薄을緩和리라하야 買方의態度는儼然不動▲그러나賞取引店의賣物은 表面으로도一萬四五千石이나된다 그러나昨今反撥에도 꿈적하지안코 그氣配이어떠한現象을招來?

各地正米

京城一息

當用小口의買氣가잇스나 實物薄으로取引이不進捗이오 一息商狀을보한 丸仁三等二十七圓六十五錢 四等二十七圓五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五十錢

仁川强含

在米의急激한減退로 氣配不變이나 價位는 買人氣旺盛하야 目前은 强含商狀을呈한 丸仁三等二十七圓六十五錢 四等二十七圓四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八十二錢

釜山保合

市場實物 三千叺에 產地의 實物은 依然微少를報하나 今朝는 定期의一息商況으로 一般의 買氣不起이오 僅히六〇叺의 取引이잇슬뿐인 角ア三等二十七圓 四等二十七圓九十錢 一等白米二十一圓二十錢

大邱閑況

奧地의 出盛으로 不賣不買의 無活氣한場面으로閑散商況을 呈한 角ア三等二十七圓 四等二十七圓三十錢 一等白米十一圓六十錢

群山小弛

農場側의 積物六輛의出廻가잇섯스나 新規의實物이업고 定期의軟調를보고 買氣가衰하얏스며 氣配五錢小弛이나 價位는 移出側에 買狙된菱ク三等二十七圓九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五錢 一等白米十二圓四十錢

木浦不變

出廻 四輛、在庫漸減으로買物이적고 定期保合을 듯고 別로買氣가업스나 實需側과 月末準備買物散見으로 閑散裡에保合인 丸木多摩三等二十九圓四十錢 四等二十九圓二十錢 雄町三等廿七圓九十錢 四等二十七圓七十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南浦同調

依然不買의無取引場面을 呈하고 市勢는 前日과不變이오 田龜尾三等二十七圓八十五錢 四等二十七圓六十五錢 一等白米十一圓五十錢

堂島前場浮動

【大阪電話】東京側의山種一派는 前場寄付로부터一千六百石을新規로 買하고 中東側의永岡은 北川으로부터 二千二百石을 乘換的로賣進하얏다 賣方 中東側·山種·與·三木 買方田中貞、地場、神戶側、共同、海側

金.銀.白金
京城德力
京城府明治町
地方注文代金引換販賣 郵送料先方負擔
電話本局 3939 3334

金融 (廿六日)

◆滬外滙經 (25日) [illegible]
◆朝鮮銀行券 (25日) [illegible]
◆日本銀行券 (25日) [illegible]
◆京城手形交換高 [illegible]
◆東京金利 [illegible]
◆大阪金利 [illegible]
◆對外爲替 [illegible]
◆金買入價 [illegible]

米穀 (廿六日)

◆京城正米 [illegible]
◆仁川正米 [illegible]
◆大阪正米標準價 [illegible]
◆京城雜穀 [illegible]
◆仁川大豆 [illegible]

商品 (廿六日)

◆京城綿糸布市況 [illegible]
◆京城綿布 [illegible]
◆日本變動市況 (25日) [illegible]
◆치카고期米 (25日) [illegible]
◆綿油沖價 [illegible]
◆滿洲商況 [illegible]
◆大連特產市況 [illegible]
◆滿洲粕沖價 [illegible]

株式 (廿六日)

◆朝取短期 [illegible]
◆大阪長期 [illegible]
◆大阪短期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東京現株 [illegible]
◆朝取期實 [illegible]
◆東京短期取組 [illegible]
◆東京短期 [illegible]
◆國定代行日步 [illegible]

期米 (廿六日)

◆朝取期米 [illegible]
◆大阪期米 [illegible]
◆東京期米 [illegible]
◆大阪期米取組 [illegible]
◆大阪市中在米高 [illegible]
◆朝鮮內各地期米 [illegible]
◆朝鮮期米 [illegible]
◆堂島前場浮動 [illegible]

商品 (廿六日)

◆大阪綿糸 [illegible]
◆日本各地期米 [illegible]
◆大阪綿花 [illegible]
◆各地人絹 [illegible]
◆橫濱生糸 [illegible]
◆大阪砂糖 [illegible]
◆海外砂糖 [illegible]